

2007 하반기 문화정책 대화모임 대화록

지역 문화정책과 관련한 실태조사의 역할과 활용방안

2007 하반기 『문화정책 대화 모임』 대화록

지역 문화정책과 관련한 실태조사의 역할과 활용방안



성남문화재단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인 사 말



시대정신(Zeitgeist)!

저는 이 단어를 떠올릴 때면 늘 표현할 수 없는 격렬한 가슴떨림과 커다란 무게의 책임감을 느끼곤 합니다. 앞선 시대를 살았던 이들의 훌륭한 문화적 전통과 업적을 옹계 계승하고 다음 세대의 우리 후손들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정신적, 물리적 문화유산을 창조하는 일. 이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할 우리의 도전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 정신’을 찾아 그것을 실현하려는 노력은 진취적인 열정과 뜨거운 마음이 담긴 ‘청년 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청년정신’과 함께 하기 위해 늘 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현 시대정신은 무엇일까요?

지방자치의 시대를 맞아, 지역의 특성과 현실에 맞는 지역문화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다양한 스펙트럼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성남문화재단도 성남시의 문화발전을 위한 문화정책 수립과 추진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정책은 지역민들에게 보다 풍요로운 문화적 환경에서 보다 나은 문화적 삶을 영위할 있도록 희망찬 비전과 명쾌한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문화정책 수립과 추진은 철저히 현실에 기반을 둔 실현가능한 구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반면, 유념해야 할 점은 지나친 이론중심이나 현실성이 미흡한 논의들은 오히려, 지역문화정책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과 참여의지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세심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은 실질적인 성남시민의 요구와 현실을 반영한 ‘살아있는’ 문화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일련의 실태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사랑방 문화클럽 실태 및 욕구조사’와 ‘성남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성남시의 인적 문화자원을 파악하였고, 최근 수행한 ‘성남 문화공간 실태조사’를 통해 성남시민들의 문화활동 공간을 조사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러한 실태조사들은 성남문화재단이 수립하고 추진 중인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 사업’ ‘문화통화 시스템 기반구축 사업’ 등 5대 정책사업들의 근거로써, 성남시 현실과 시민들의 문화적 요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은 앞으로도 성남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문화정책 수립과 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태조사 등 여러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항상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쯁도, 이번 2007 하반기 『문화정책 대화모임』이 향후 지속적인 성남시의 지역문화정책 실천과 노력으로 이어져 성남시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바쁘신 와중에서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가슴깊이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2007년 10월

성남문화재단 상임이사

이 중 덕

<목 차>

■ 행사개요	1
■ 성남문화재단 실태조사 현황	2
■ 주제발표	
발제 1	
문화관련 실태조사와 정책 활용	3
조 현 성(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발제 2	
성남문화재단 5대정책사업 추진과 실태조사의 목적	10
유 상 진(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과장)	
발제 3	
성남시 문화공간 실태조사	17
추 미 경((사)다움문화예술기획연구회 기획실장)	
■ 문화정책 대화모임 대화록	28
■ 문화정책 대화모임 명단	64

행 사 개 요

▣ 주요 발제 및 토론

- 발제 1. 실태조사와 문화정책에의 활용
조현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 발제 2. 성남문화재단 5대 정책사업 추진과 실태조사의 목적
유상진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과장)
- 발제 3. 성남시 문화공간 실태조사
추미경 ((사)다움문화예술기획연구회 기획실장)
- 토론 사 회: 박승현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부장)

▣ 진행순서

예정 시간	내용		진행
14:00	개회		사회자
14:00-14:05	인사말		이 중 덕 (성남문화재단 상임이사)
14:05-14:20	발제 1	실태조사와 문화정책에의 활용	조 현 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14:20-14:35	발제 2	성남문화재단 5대 정책사업 추진과 실태조사의 목적	유 상 진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과장)
14:35-14:50	발제 3	성남시 문화공간 실태조사	추미경 ((사)다움문화예술기획연구회 기획실장)
14:50-15:15	주제 토론	지역단위 문화 실태조사의 활용과 문화정책의 수립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위원회 위원장) 김홍남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팀 팀장) 라도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오세형 (경기문화재단 예술지원팀 전문위원)
15:15-15:25	휴 식		
15:25-16:55	자유 토론		참석자 전원
16:55-17:00	정리 및 폐회		사회자

성남문화재단 실태조사 현황

■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 조 사 명 : 2006 성남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 조사기간 : 2006. 7~2006. 9
- 조사대상 : 성남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401인
- 조사내용 : 문화예술 창작 여건, 만족도, 문화예술 저해요인, 지역 문화예술 현안, 참여도, 분야별 문화예술 활동 실태 등

■ 사랑방문화클럽 실태 및 욕구조사

- 조 사 명 : 성남시 사랑방문화클럽 실태 및 욕구조사
- 조사기간 : 2006. 7~2006. 10
- 조사대상 : 성남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동호회 320개
- 조사내용 : 기관의 프로그램, 동호회, 공간대여 현황, 문화클럽 유형별 특성, 지원요구사항 등

■ 문화공간 실태조사

- 조 사 명 : 성남시 문화공간 실태조사
- 조사기간 : 2007. 6~2007. 9
- 조사대상 : 성남지역 내 481개 문화공간
- 조사내용 : 주민자치센터, 공공기관(문화시설, 공기업 포함), 학교, 아파트, 종교시설, 민간기업 및 기타공간 등 481개 공간

발제 1

문화관련 실태조사와 정책활용

조 현 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1. 문화정책 담당자라면, 문화사업을 도모하려는 사람이라면, 문화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특히 논문을 쓰려는 학생이라면), 그리고 기사거리 찾는 문화담당 기자라면, 우리 문화를 수치로 보여주는 자료를 애타게 찾는다. 자료가 생성되어 발표되면,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면 때로는 드러내놓고, 때로는 자기들끼리 자료의 양과 질에 대해서 불만을 이야기한다.

「문화향수실태조사」 같은 전국 단위 문화관련 실태조사를 담당자로서 그 불만을 어느 때는 이해하고 어느 때는 오해한다. 이해하는 건 실태조사가 제공하는 정보가 충분하지는 못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조사의 포괄범위, 개수, 주기(빈도) 같은 양적인 면, 조사 방법, 수준, 그리고 이용 편의성이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다.

오해하는 건 실태조사를 만능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현재의 실태조사를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건 맞다. 하지만 중앙정부(관련기관)에서 문화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완벽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별 이해관계자에게 그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면 이견 무리다. 실태조사에 대한 기대를 당연하지만, 이것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걸 중앙정부(관련기관) 차원에서 실시하는 조사를 주된 대상으로 하여 지역문화정책의 측면에서 살펴보겠다.

2. 문화분야의 실태조사 현황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여기서 문화는 문화기반시설, 예술, 문화향유에 집중하겠다. 실태조사는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자세히 살피는 일’이다. 자세히 살피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주로 숫자를 통해 살펴보는 방법에 한정하겠다—사실, 실태조사의 어감은 통계(조사)에 가깝다.

2.1.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문화관련 실태조사는 문화관광부(유관기관)와 통계청에서 담당한다. 이 가운데 규칙적으로 실시되는 조사의 내용과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분류	조사명	주관기관
문화기반시설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문화관광부
예술	문화예술인실태조사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단체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예연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향유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사회통계조사: 문화여가	통계청

〈 주요 문화실태 조사 〉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은 지역문화정책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임에도 활용도가 높지 못하다. 2003년부터 매년 발간된 자료로,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그리고 문화의집 시설과 운영실태를 포괄하고 있다. 다섯 가지 종류의 문화시설의 운영주체(지자체, 법인, 개인)에서 제출한 자료를 문화관광부에서 편집하는 형태로 제공된다.

그런데 이 자료는 실태조사의 결과이지만, 날(raw)자료—시설별로 단순히 수치만을 보여 주는—여서,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상당한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자료를 한글 형태로 제공하여 분석 작업을 하려면 새롭게 입력하는 수고가 필요하다.

그래도 문화시설을 총정리하고 있는 바, 분석 작업만 제대로 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여기에는 하나의 전제가 있다. 자료의 질이 좋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자신할 수만은 없다. 예를 들어, 도서관 수 같은 경우에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과 중앙도서관에서 집계하여 도서관협회에서 발간하는 「도서관연감」이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것은 운영주체(지자체, 법인, 개인)가 제출하는 원자료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또한 운영실태, 특히 프로그램 부분에서는 작성자의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 따라서 작성 가이드라인 제시와 제출 후 확인·검토작업이 필요하다.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은 몇 가지 점만 보완된다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자료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연단위로 운영주

체에게서 원자료를 받는 형식을 재고해야 한다. 시설현황은 적어도 분기별, 그리고 운영 현황—프로그램과 수강자 수—같은 것은 월단위 정도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 문화통계 DB구축이다. 기반시설 DB구축은 기본적으로 자료 접근성 확대와 통계 분석을 위함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자료 수집까지를 포괄해야 한다. 기반시설 운영주체가 시설과 운영현황을 온라인상에서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자료 입력(수집)→자료 관리→자료 검색→분석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일은 자료 입력이 신속하고 정확해야 한다. 무엇을(지표), 어떻게(방법)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설정은 물론 중앙정부의 몫이다. 하지만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의 입력은 철저하게 운영주체(그중에서도 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일이다.

현재, 몇몇 자치단체에서는 문화지표 설정과 조사작업을 계획하거나 수행 중이다. 고무적인 현상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수집된 수치자료가 정책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다른 자치단체와의 비교가 필요하다. 물론 이상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 개별 자치단체에서 이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자치단체의 실태는 다른 자치단체와의 관계 속에서 뚜렷해진다. 문제는 몇몇 자치단체에서만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는 비교가 어렵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경기문화재단에서 2007년 실시한 「경기도 문화지표체계 개발연구」에서는 경기도의 문화인프라를 다른 시도와 비교하고 있다. 경기도의 자료원은 다양한데, 다른 시도의 자료원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이다. 전국단위 자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 지역단위 자료가 아무리 정확해도 노력대비 효과는 높을 수 없다. 해결방법은 모든 지역단위에서 정확한 자료를 산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치단체 문화통계협의체든, 전국단위 문화통계 DB든지 간에 자치단체—이때 자치단체는 광역이 아니라 기초지자체이다—의 문화기반시설 통계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2.2. 문화관광부(유관기관)에서 산출하는 예술관련 실태조사는 「문화예술인실태조사」와 「문예연감」의 예술별 행사 수 통계가 대표적이다.

「문화예술인실태조사」는 1988년부터 3년 주기로 10개 분야 예술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표본조사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설문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실제조사는 사설리서치회사에서 주로 우편을 통해 실시한다. 예술인의 일반적 속성과 창작실태와 의식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예술인 창작지원 같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다.

이 조사는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지역문화와 관련해서 보자면 예술인의 지역적인 특성을 알 수 없다. 총 2,000명의 지역적 분포는 서울이 42%(844명)이고, 광역시가 14%(288명), 그리고 시군지역이 43%(868명)이다(2006년 조사). 따라서 지자체별로

통계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모집단인 예술인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표본크기가 작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에서 이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실제 경기도와 인천에서는 「문화예술인실태조사」와 유사한 설문과 방법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예술인 조사는 지역의 예술정책을 펴 나가는 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인 바, 광역 자치단체에서 모두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조사대상자 명부확보가 그렇다. 「문화예술인실태조사」는 기본적으로 예총과 민예총의 산하 단위협회의 협조를 받아 모집단 명부를 작성한다. 그런데 단위협회의 회원과 지역 예총·지역 문예총 회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예총이나 민예총이 이중구조(협회별 회원과 지역회원)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예술인실태조사」는 단위협회원을, 광역수준의 예술인 조사는 지회원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이 경우 동일한 수준에서의 비교가 어렵게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문화예술인실태조사」가 지역회원까지를 포괄하는 것이겠지만, 지회·지부에서 관리하는 회원명부의 입수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현실적으로는 광역지자체 수준에서 조사를 실시할 때, 지회·지부를 포괄하는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문화예술인실태조사」에서 활용하는 방식, 아니면 단위협회에서 포괄적인 회원명부를 작성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문화예술인실태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지역의 예술인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일이다.

지역에서 실시하는 예술인실태조사의 설문은 「문화예술인실태조사」와 공통설문, 그리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설문으로 이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문화예술인실태조사」를 계획·수행하고자 하는데 설문 개발에서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이야기하자면 복잡해진다. 경기도에서는 약 800명 정도를 조사하고자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31개 시군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기에 무리라는 점이다. 그렇다고 31개 시군에서 일정한 규모의 표본크기의 조사를 실시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발생한다. 역량과 여력이 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조사를 실시한다면, 광역지자체와 협의하여 동시에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초지자체를 과대표집하고, 실시하는 지자체를 과소표집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얼핏 보아, 조사를 실시하는 기초지자체에 불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지자체 자체의 표본크기를 줄어 들지 않고, 오히려 인근 시·군과의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예연감」의 예술행사 통계는 연단위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중앙·지방 신문의 문예면에 소개된 예술정보 등을 취합하여 생산한다. 광역지자체 수준까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문화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지만 이용도가 높지 못하다. 단순히 텍스트 형식으로만 제공되고, 연단위 집계도 다소 늦게 나오기 때문이다. 전자는 문화관광부

에서 추진하는 통계관리 강화계획에 따라 개선 가능하다. 후자는 지역 문화정책 수립 시 다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신문 검색을 통해 모든 지역의 예술행사를 서울에서 집계하는 건 다소 무리다. 기반시설 DB가 구축되면 공공기관에서 열리는 예술행사의 집계는 가능하다. 다만 민간시설의 예술행사는 개별 지자체에서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 지자체의 예술행사 상당수는 공공시설에서 개최되는 바, 민간시설의 예술행사 파악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기초 지자체의 예술행사의 집계는 기초지자체의 몫이어야 한다.

2.3. 전국단위의 문화향유 실태는 「문화향수실태조사」와 「사회통계조사: 문화와 여가부분」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

「문화향수실태조사」는 1988년부터 3년 주기로 15세 이상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다가, 최근에는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표본크기를 3,000명으로 확대하였다. 「문화예술인실태조사」와 마찬가지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설문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설리서치회사에서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이 자료는 국민들의 문화생활 전반을 밝혀주고 있지만 표본크기가 작아서 지역문화정책에 활용되기는 어렵다. 2006년에 선행조사에 비하여 표본크기를 1,000명 늘려 3,000명을 조사했어도 울산은 67명(2.2%), 충북은 96명(3.2%)에 불과하다. 따라서 보고서 본문에서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으로만 구분하고, 부록에서 15개 시도(제주 제외)별 자료를 제공한다.

따라서 광역지자체에서는 유사조사를 실시하거나—경기도에서는 2007년 1,950명을 조사함—, 지역 종합문화발전계획 같은 것을 수립할 때 약 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하지만 조사주기가 길거나 비정기 조사여서 활용도는 높지 못하다.

「문화향수실태조사」는 향후 표본크기를 확대하여 광역지자체별 비교, 또는 광역지자체 내의 변인별 분포 등을 제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지만 예산 등으로 문제로 단기간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따라서 광역지자체별로 별도의 주기별 조사를 실시하는 게 현실적이다. 예술인조사와 마찬가지로 기초지자체와 협의하여 표본크기의 조정이 요구된다.

현재수준에서도 광역수준에서 문화향유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 통계청에서 4년마다 실시하는 「사회통계조사: 문화와 여가부분」이다. 전국에서 약 38,000 가구의 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바, 16개 시도별로 인구통계학적 변인(성, 연령, 직업, 학력)등의 정보를 텍스트와 DB형태로 제공한다. 「문화향수실태조사」에 비하여 문항 수가 적고, 대중매체 이용 같은 항목이 많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광역단위 지역문화정책 수립 시 가장 유용한 자료다—역시 광역수준에서만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활용할

수 없다.

3. 문화관광부(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전국단위 실태조사가 지역문화정책에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많다. 포괄적으로 지역문화정책을 접근해야 하는 중앙부처에서는 16개 시도별, 또는 기초지자체별 실태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역구분(예를 들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별 실태도 중요하다. 따라서 지자체별 문화 인프라, 예술, 주민의 문화향유와 관련된 통계는 1차적으로 지자체에서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료의 생성과 관리에 힘써야 한다. 물론 중앙부처에서는 지표개발, DB 구축 같은 상당한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총괄해야 한다. 실제, 국가통계 강화정책에 따라 문화관광부 성과관리팀에서는 문화관광통계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을 내년도부터 수행할 계획에 있다.

지역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예술인조사의 사례에서 보듯이 몇몇 광역지자체에서 관련 조사를 수행한다고 해도 그 효과는 높지 못하다. 다른 광역에서도 이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광역수준의 통계협의체 구성이 요구된다. 실제,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통계협의체에 광역 지자체의 대표자가 참여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유사한 조직을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현재로서는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지는 않았다. 모든 광역지자체의 참여를 전제로 하며, 실제적인 강제력이 있어야 되는 데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지역에서 표준화된—비교 가능한—문화통계에 대한 욕구가 강하여, 모두 참여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통계생산 및 관리시스템은 없을 것이다.

또한 하나의 광역지자체 내에서는 기초자치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문화통계를 생산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대로 기초지자체의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모든 기초지자체에서 별도의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기초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가 광역수준에서 협력·보완하는 일이 필요하다.

여력이 있는 (기초)지자체에서는 특화된 실태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성남에서 수행 중인 ‘문화공간 관련조사’는 정책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런 조사는 중앙정부나 도(道) 단위에서는 시도할 수 없다. 이 같은 실태조사가 유용한 것은 정책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실태조사는 만능이 아니다. 정책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뚜렷한 목적이 있을 때만이 조사의 대내외적 논리와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중앙정부 수준에서 실시하는 문화관련 조사는 일반적이다. 지자체에서는 일반적 조사를 통해 자신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함은 물론, 특화된 정책목표에 따라 고유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이 필수불가결하다. 아마도 지역에서 조사가 충분치 않은 가장 큰 이유가 인력과 예산일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자면, 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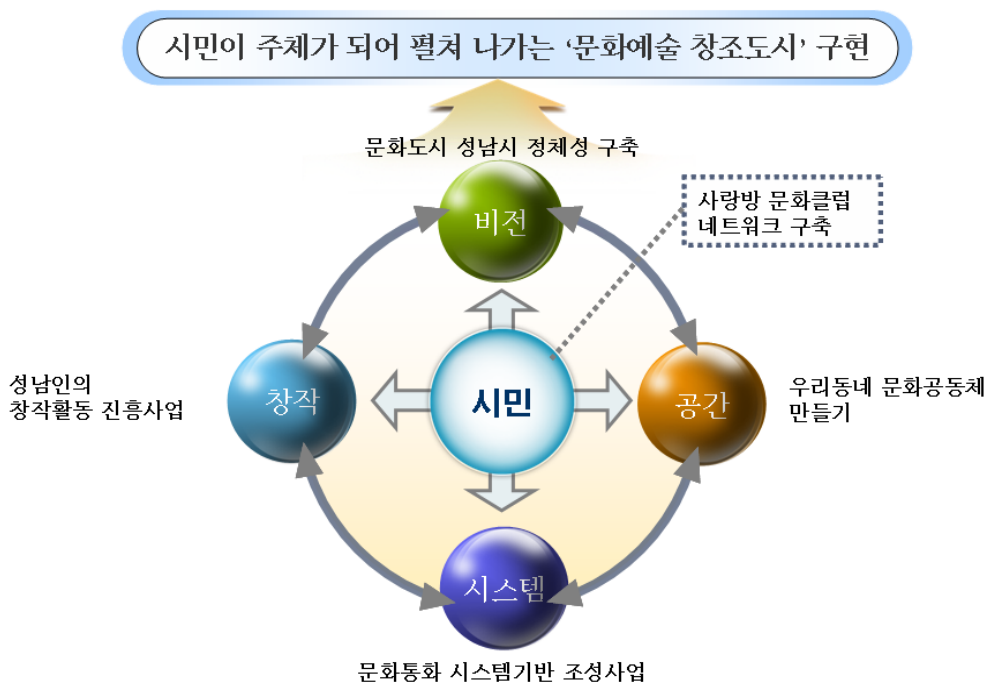
성 문화행사보다는 기반을 튼실하게 하는 일이 훨씬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이건 정책적 판단의 문제다. 인력과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도, 지역별로 실태조사의 수준과 활용도는 차이가 날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하자면, 그건 정책목표 설정에서부터 비롯될 것이다.

발제 2

성남문화재단 5대정책사업 추진과 실태조사의 목적

유 상 진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과장)

‘2006년~2008년의 1단계 3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성남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창조도시 성남’으로 발전하기 위한 핵심사업으로 5대 문화정책사업을 수립·시행 중에 있다. 성남문화재단의 5대 문화정책 사업은 다음과 같다.



성남문화재단의 5대 문화정책 사업의 추진 전략 및 과제는 ‘객관적인 성남시의 문화적 역량 조사를 실시하고 단기성과 지향의 문화사업 보다는 중장기적인 시각의 문화발전 전략을 통하여 자원, 인력,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문화예술 창조도시 성남 만들기’를 목표로 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의 구체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¹⁾

- 문화정책체성 제고 및 정립
- 문화기반시설운영 활성화 및 확충
- 문화복지증진 사업개발 및 기반조성
- 지속가능한 문화발전 추진체계 구축

일반 정책과 마찬가지로 문화정책의 수립과 추진은 정책환경의 분석과 검증을 통한 배경과 근거 제시, 수립한 정책의 타당성과 영향 예측, 정책의 확정·시행, 그리고 성과에 대한 평가 등 일련의 과정으로 구성된다.²⁾ 문화정책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예측 가능한 지향 목표와 성과로 구체화 하여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문화정책은 설정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기능적 수단’ 이상으로, 철학적 의의를 담고 있어야 하며, 공공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특히, 문화정책 담론 가운데 국민 또는 시민의 개인적 취향과 선택이 과연 공공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왔으나, 각 국가나 지역정부의 최근 공공성을 강조한 문화정책 활동이 그 어느 때 보다 활발하게 수립되고 추진되는 추세에 있으며,³⁾ 이론적으로도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편익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성남문화재단의 5대 문화정책 사업의 수립과 추진에 있어서, 정책적 판단과 근거, 그리고 철학적 배경과 지향목표의 설정은 그동안 수행한 일련의 실태조사에 준거하고 있다. 또한 성남문화재단이 수립·추진하고자 하는 지역 문화정책은 성남 시민의 수요와 요구에 대응하고, 지역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보편성을 모두 고려한 것이어야 하므로, 실태조사의 시행은 단순한 정책 수단이 아닌 그 자체로써 정책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성남문화재단이 실시한 실태조사는 다음과 같다.

• 성남 문화예술인 실태조사(2006)

1)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 창조도시 성남만들기 기본계획 연구」, 2006

2)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영향평가 해외사례조사 연구」, 2003

3) 강철근, 「문화정책론」, 사회교육연구회, 2004

- 성남시 사랑방 문화클럽 실태 및 욕구 조사(2006)
- 성남시 문화공간 실태조사(2007)

5대 문화정책 사업의 목표 수립과 추진을 위한 ‘객관적 성남시의 문화적 역량 조사’를 위해 실시한 상기 3개의 실태조사와 2008년 시행 예정인 구/신도심의 심층 문화향수 실태조사는 크게 3가지 역할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

- 시민 중심 지역문화정책 및 지원제도 수립의 근거와 당위성 제공
- 지역 내 지속가능한 생활권 문화공간의 발굴
- 시민 문화활동의 새로운 교환양식 개발의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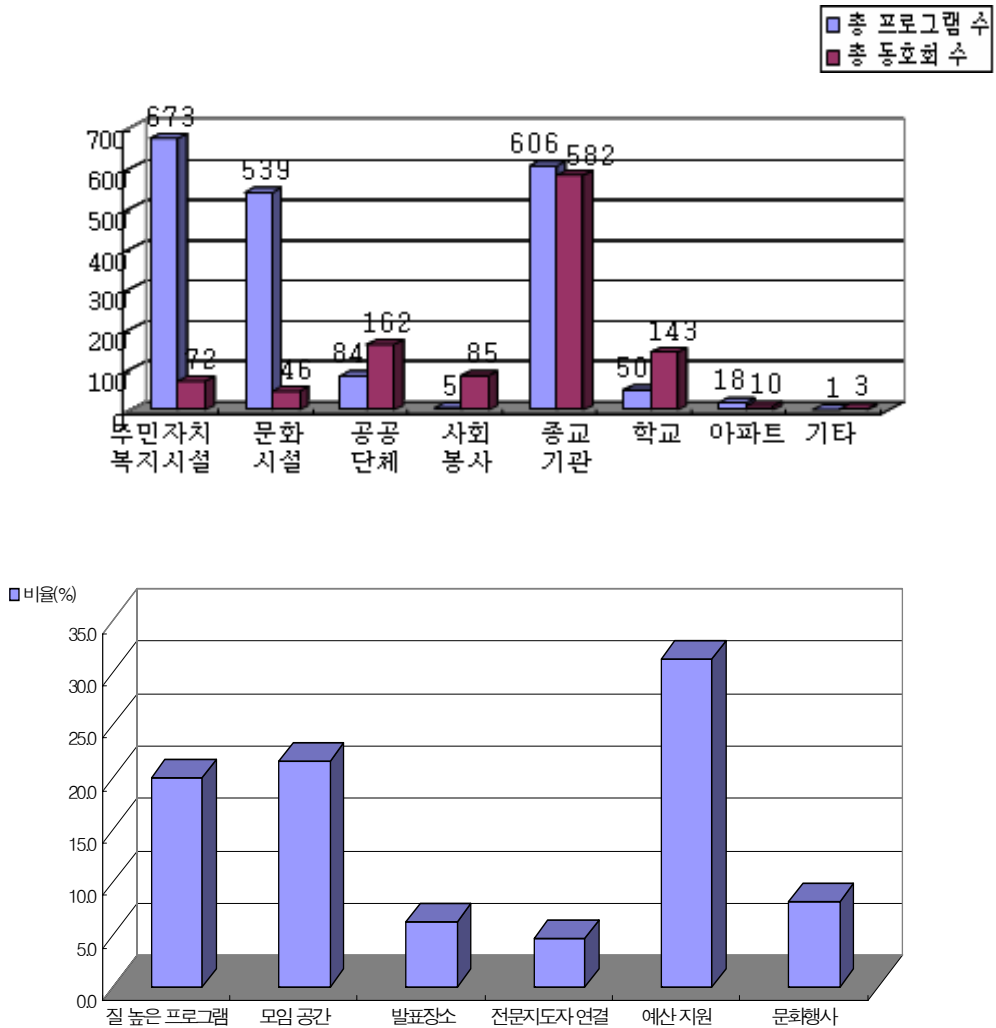
1. 시민 중심 지역문화정책 및 지원제도 수립의 근거와 당위성 제공

지역문화정책의 대상과 영역은 크게 지역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인 지원, 문화환경 조성, 시민문화향수 증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동안 수립·추진된 문화정책들의 문제점들 중 주요하게 지적되고 있는 점은 시민들을 일방적인 정책의 수혜대상으로 바라보는 공급자 중심의 정책방향과 내용이라는 것이다.

성남문화재단의 5대 정책사업의 특징은 이러한 비판과 문제 지적에 대응하고자 시민 문화활동 지원과 환경조성에 큰 무게를 두고 있는 점이다. 2006년 시행한 ‘성남시 사랑방 문화클럽 실태 및 욕구조사’의 경우 국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민이 자생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하는 지역 내 문화예술 동호인 클럽에 대한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그들이 바라는 정책적 지원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었다.

성남시 사랑방 문화클럽 실태 및 욕구조사’는 지역 내 문화시설과 주민자치 및 복지시설 등 1057개의 기관 중 373개를 전화설문(응답율 35%) 및 직접방문을 통하여 1103개의 문화예술 동호회가 활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들의 최우선 정책적 요구는 클럽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모임 및 발표공간과 질 높은 프로그램을 통한 역량제고’이었으며 ‘예산지원’이란 항목 역시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 해주길 요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성남시 문화동호회 수 및 운영 프로그램 수>



<성남시 문화동호회의 지원요구 사항>

이러한 실태 및 욕구조사의 결과에 따라 성남문화재단은 정책적 지원방안으로 2007년 순수 문화예술 동호인을 지원하기 위한 성남문화재단의 공모사업을 통해 42개의 사랑방 문화클럽 지원하였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전문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예술발전기금 공모사업과는 성격이 다른 순수 아마추어 문화클럽 중심 지원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성남문화재단이 추진 중인 ‘문화도시 성남의 문화정체성 구축사업’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제기하고 있다. ‘문화정체성 구축’이 인위적인 정책개입을 통해 형성과 지속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는 유효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성남문화재단이 지향하는 ‘문화예술 창조도시 성남시의 문화정체성 구축’ 정책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정책개입의 강제성과 인위성을 통한 직접적인 문화정체성 구축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성남시의 문화정체성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추동력을 지원하고 그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시행한 ‘성남시 사랑방문화클럽 실태 및 욕구조사’ ‘성남시 문화공간 실태조사’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성남시민들의 요구사항들에 의해서도 뒷받침 될 수 있다.

2. 지역 내 지속가능한 생활권 문화공간의 발굴

일본의 경우, 70,80년대 주요 지역문화정책 사안은 문화기반시설 건립이었다. 문예회관과 같은 많은 공공 문화시설들 건립 되었으며, 규모도 상당히 큰 것이었다. 당시 정책적 판단은 ‘공간이 있으면 속은 자연스럽게 채워진다.’라는 논리였다. 그러나 90년대 이르러, 많은 공공 문화시설들이 시설 유지와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민 친화형 프로그램의 부족과 접근성의 미비 등의 문제들로 인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게 되었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및 공간의 ‘복합화’와 ‘생활밀착화’ 등의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주류적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안타깝게도 일본이 경험한 전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상황이다. 90년대 지방자치제도의 시행과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중앙정부와 많은 지방자치정부들이 문예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등의 물리적 인프라 건립에 상당한 투자를 기울였다. 이는 2000년대에 들어 대형화되는 추세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대안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그 주요한 예가 ‘생활권 여가 인프라공간 확충’ 정책이다. 문화시설의 ‘생활권’이란 내용적으로는 ‘주민들의 생활문화활동이 일상적으로 펼쳐질 수 있는 범위’ 이용형태에 따라서는 ‘거주지의 접근성(걸어서 15분 이내)이나 이용빈도(주 2-3회 지속적 접근이 가능한 시설)에서 일상성이 허용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문화활동 또는 강좌시설, 동호회 활동의 거점이 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로 정의 할 수 있다.⁴⁾

성남문화재단의 경우, 문화클럽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문화공간 자원 확보와 네트워크 구축을 시스템화 하기 위한 시도로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 사업’과 ‘문화통화 시스템 기반 구축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이 사업들의 정책적 핵심은 성남시 내 시민 문화자원의 발굴과 네트워크 그리고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가용한 생활권 문화공간의 확보이다. 이는, 문화자원과 공간을 치밀한 분석과 장기적인 계획 없이 지원하고 건립하는 것을 지양하는 한편, 현재 이용 가능한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청소년 수련관과 같은 공공시설과 교회, 기업, 카페, 레스토랑과 같은 민간시설 등 훌륭한 문화자원과 공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현실적 정책실천 방안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방안의 근거와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남시 사랑방문화클럽 실태 및 욕구조사’ ‘성남시 문화공간 실태조사’이다. 이 두 실태조사는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수립 정당성을 입증하며, 정책 추진의 주동력을 제공하는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성남시가 운영·관리하는 주민자치센터와 같은 공공문화시설 및 공간, 그리고 학교시설의 시민 이용 확대를 건의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 자료로써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3. 시민 문화활동의 새로운 교환양식 개발의 근거

일반적으로 시민 문화활동은 생활환경과의 긴밀한 연관 속에서 진행되는데, 문화자본을 축적한 계층의 시민들이 문화향유의 기회와 참여율이 높은 반면, 문화자본이 취약한 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문화활동의 욕구와 기회는 낮게 형성된다.⁵⁾ 또한 시장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교환방식도 시민들의 문화활동 거래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일반 시민들이 문화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비용이 발생한다. 연습이나 공연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간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고, 공연이나 전시회 관람을 위해서는 관람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지불 비용의 댓가로 문화활동 주체들은 즐거움과 자기실현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문화활동의 비용 부담은 시민들의 문화활동과 욕구를 위축시키며, 또한 직접지원도 자생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지원기관이 시민문화활동을 통제할 위험이 있다.

성남문화재단이 시행 중인 ‘문화통화 시스템 기반구축 사업’은 이러한 위험성과 장애요인들에 대한 대안으로 시민문화활동의 새로운 교환양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시

4)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생활권 여가 인프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주민참여 방안 연구」, 2004

5) 부르디외 저, 현택수 옮김, 「문화와 권력」, 나남출판사, 1998

장가치를 지니고 있는 법정화폐를 통한 문화활동 비용지급이 아니라, 공동체적 가치를 담고 있는 대안화폐인 문화통화를 통한 거래이다. 이 교환양식은 기존 시장논리가 요구하는 거래조건이 아닌 문화활동의 주체들이 상호 협의 하에 만들어진 거래조건을 기준으로 교환행위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는 시민들이 시장가치 위주의 화폐경제에서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문화활동의 통로를 제공하고 있다.

성남문화재단은 문화통화 사업의 추진을 위해 2006년에 ‘성남시 사랑방 문화클럽 실태 및 욕구조사’와 ‘성남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내 풍부한 문화자원을 발굴하였으며, 문화활동의 장애요인과 지원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였다. ‘성남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는 지역의 문화예술인 2000여명 중 401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의 96.5%에 이르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문화통화 시스템에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그 주요 동기로는 ‘주민과 예술과의 거리극복’ (35.1%), ‘즐거운 삶의 영위와 삶의 질 향상’ (34.8%), ‘지역공동체 의식고양’ (13.2%), ‘사장될 수 있는 재능의 활용’ (10.3%) 등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올 2007년에는 ‘성남시 문화공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문화공간자원을 조사, 발굴하여, 사랑방 문화클럽과 문화통화 사업을 연계하고 네트워크화 할 수 있는 필요성과 가능성을 탐색하기도 하였다. ‘성남시 문화공간 실태조사’는 지역 내 850여개의 공간과 시설을 3개 유형으로 나누고, 전화 및 방문조사를 통한 1,2차 필터링과 샘플링 작업을 통해 160여개의 활용 가능한 문화공간을 DB화하였다. 현재 문화통화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진은 DB화된 공간자원과 세부정보들을 적극 활용하여 사랑방 확대 캠페인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그 성과로 보바스 병원을 비롯한 3곳의 사랑방 문화공간을 지정하여 사랑방 문화클럽들의 활동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성남문화재단이 그동안 실시한 실태조사는 5대 정책사업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향후 신규심의 문화향수실태를 심층 조사하여 지역별, 계층별 세분화된 조사와 그동안 진행된 실태조사들을 통해 성남시의 문화환경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이러한 작업은 ‘2009년~2013년의 2단계 5개년 발전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발제 3

성남시 문화공간 실태조사

추 미 경 ((사)다움문화예술기획연구회 기획실장)

Contents

- I. 지역 단위 문화 실태조사의 의미와 사례
- II. 성남시 문화공간 실태조사의 개요
- III. 성남시 문화공간 실태조사의 과정
- IV. 성남시 문화공간 실태조사의 결과
- V. 성남시 문화공간 실태조사를 통해 본 실천적 성과

성남시 문화공간 실태조사

I. 지역 단위 문화 실태조사의 의미와 사례



- **지역 단위 문화 실태조사의 활성화** : 최근 지방자치 10년이 지나면서 지역의 구체적 실정에 기반한 지역문화정책 수립이 활성화되고 있음. 이에 지역실정에 맞는 실질적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근거로서 지역 단위 문화 관련 실태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기관	실태 조사 유형	조사 목적
서울시청개발연구원	서울문화자원 분포현황 및 문화생태연구(2007년 3월 1일 ~ 12월 31일)	서울지역 전반의 문화시설 및 문화 거리, 문화 지역 등 문화공간자원의 현황을 조사하여 종합적인 분포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문화 생태 및 네트워크를 파악하기 위함.
경기도문화재단	경기도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현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진행중)	경기도 문화예술인의 현황과 욕구를 파악하여 경기도의 중장기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함.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 문화정보 인프라 구축 (2007년 10월 시작 예정)	부평구의 문화의 인적, 물적 자원 등을 DB화하여 문화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문화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함.

예술생태계의 근거 자료로서의 실태조사의 활용 : 정책의 생산 및 근거로서 생산되는 각 지역의 실태조사는 향후 건강한 예술 생태계를 규명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현재까지는 지역 상황에 맞는 개별 지표나 조사방법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상황이며, 정책수립과 실행의 연계과정이 모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역 사례에 대한 소동과 논의**를 공론화하여 향후 지역에 맞는 체계적인 접근 및 조사방법, 정책수립으로의 연계와 적용효과 등이 객관화될 필요가 있을 것임.

성남시 문화공간 실태조사

II. 성남시 문화공간 실태조사의 개요

1. 연구 배경



- **시민 자생적인 문화클럽의 활성화** : 성남시는 예술, 문화의 향유자이자 생산참여자로서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욕구가 문화클럽으로 활성화 되어 나타남. 클럽들의 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모임 공간 및 발표 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연구 배경

- **사랑방 문화클럽에 대한 연구를 통해 공간 조사의 필요성 제기됨**

- 성남문화재단에서는 이전 연구(성남시 사랑방문화클럽 실태 및 욕구조사_2006년 10월, 사랑방 문화클럽 발전방안 연구_2006년 12월)를 통하여 성남지역에 존재하는 시민 자생적인 문화클럽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
- 연구 진행 과정에서 약 1,000여 개의 클럽들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함. 설문 결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클럽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1위가 예산지원, 2위가 모임을 위한 공간, 3위가 질 높은 프로그램개발 제공 순으로 나타남.
- 위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클럽 대상 설문 결과의 2위로 나타난 모임을 위한 공간을 찾아주자는 취지로 본 사업을 기획하게 됨.

- **문화통화와의 연계선상에서 사업 진행**

- 공간을 찾는 작업과 함께 본 조사연구에서 중요하게 제기된 것은 현재 성남문화재단에서 진행중인 문화통화와의 연계선상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남문화통화의 연계가 고려된 가운데 공간을 찾는 작업이 진행됨. 공간을 관리 운영하는 주체들과의 만남의 장 속에서 성남 문화통화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이 제도 속으로 들어오도록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함.

성남시 문화공간 실태조사

II. 성남시 문화공간 실태조사의 개요

2. 연구 목적



- 성남시 유류 문화공간과 문화클럽 활동의 연계를 위한 실질적 조사의 필요성 제기 : 유류공간의 유형에 따른 조사 진행을 바탕으로 클럽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공간의 실질적인 현황을 조사하여 DB를 구축함으로써 문화공간 나눔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근거 마련.

연구 목적

- 클럽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 확보
 - 성남시에 분포하는 유류공간에 대한 조사를 통해 기본적으로 클럽들이 필요로 하는 문화공간으로 확보하는 것이 연구의 주요 목적임.
- 유형에 따른 조사 진행 및 활용 방안의 근거 마련
 - 성남시에 존재하는 전체 공간의 유형을 1, 2, 3 유형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유형에 따라 조사 진행, 향후 시민문화클럽 문화공간 활용방안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문화사랑방 오픈을 위한 기초 DB 제공
 - 연구를 통하여 파악된 문화공간들이 향후 성남문화재단에서 개척하고 있는 문화 통화 제도를 통한 문화 활동 나눔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척함. 그리고 문화사랑방 사업을 위한 기초 DB를 제공하고자 함.

성남시 문화공간 실태조사

II. 성남시 문화공간 실태조사의 개요

3. 유형별 조사



- 각각의 공간 유형에 따른 조사 방법 설정 및 조사 분석 : 전체 공간을 유형에 따라 1, 2, 3유형으로 나누어서 각각 조사함. 1유형은 주민자치센터 등의 공공기관과 복지기관임. 2유형은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 아파트 등을 조사함. 3유형은 종교기관, 대기업 등의 조사를 통하여 현실적인 가용성을 파악하고자 함.

유형 분류	조사 목적	조사 방법
제1유형 주민자치센터 등 의 공공문화기관과 복지기관	현황파악+ 현실적인 가용성 파악	① 주민자치센터, 공공기관(문화시설, 공기업 포함) 1) 45개 동 모두 전화조사 2) 클럽들의 사용여지가 있을 경우→방문심층조사 클럽들의 사용여지가 없을 경우→DB구축 ② 복지기관 1) 구별 2개씩 샘플링 및 현황 파악
제2유형 학교, 아파트 등의 새로운 공간	새로운 공간 확보	① 유류공간 조사 1) 각 구별 사유지/공유지 DB분석 2) 본 시가지 1개 동, 신시가지 1개 동을 샘플링 하여 집중분석 ② 학교 → 초등학교에 국한하여 구별 2개씩 샘플링 ③ 아파트 → 구별 2개씩 샘플링
제3유형 종교기관, 대기업 등의 공간	현황파악+ 현실적인 가용성 파악	① 종교시설 조사 ② 성남시내 대기업 10 곳 샘플링 ③ 발표공간 조사(지하철 역사, 공원 등) ④ 클럽들이 사용하는 공간 파악

성남시 문화공간 실태조사

III. 성남시 문화공간 실태조사의 과정

1. 조사 연구 추진 프로세스



• 조사 연구 추진 프로세스를 통한 공간 조사 진행 : 연구의 진행 과정을 전체 공간 DB 확보, 전화 조사 실시, 문화공간 보유 여부 확인, 방문 조사 동의, 방문 조사 실시, 공간 조사 완료의 순으로 진행함.

과 정	전체 리스트	실행 내용	비 고
전체 공간 DB	891개	성남의 이전 연구에서 사용된 공간에 대한 리스트에 대한 확보 및 성남 지역 각 기관별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전체 공간에 대한 리스트를 확보함.	구청, 주민자치센터, 초등학교, 아파트, 교회 등 대부분의 기관을 대상으로 리스트를 확보함.
1차 전화 작업을 통해 확보된 공간	526개	전화 작업을 통한 1차 선별 작업 진행함. ① 성사됨 ② 번호 미확인 ③ 전화 안 받음 ④ 통화 및 조사 거부로 나누어서 전화 결과를 정리함.	번호가 없거나 전화를 안 받는 기관들에 대해서 수 차례에 걸친 보완 작업을 통해 통화를 실시함.
문화공간 보유 대상	520개	전화 통화를 통하여 개별 기관이 문화공간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함.	전화 통화된 기관들은 대부분 유휴공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방문 동의 대상	481개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공간이라 할지라도 방문을 허락하지 않는 곳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며 방문 여부에 대해서 개별적인 조사를 실시함.	방문 동의 과정을 통하여서 실제 방문하였을 때의 오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점검 작업을 진행함.
방문조사 실시	481개	방문 조사를 동의한 공간에 대한 전체 조사를 실시함. 약 1달 이상에 걸쳐 481개에 달하는 공간에 대한 직접 방문을 실시함.	혼란된 조사와 5명이나 한 달의 기간 동안 성남 지역의 공간을 전체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함.
공간 조사 완료	160개	전체 방문 기관 481곳 가운데 방문을 했으나 조사를 거부 당한 곳을 제외한 총 160곳의 활용 가능한 기관에 대한 DB를 구축함.	전화상으로는 방문에 동의하였으나 조사원 직접 방문하였을 경우에는 개발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조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기관들이 많았음.

조사 완료된 공간에 대한 샘플링 작업 진행 및 DB 구축 작업 진행 : 문화사랑방 사업과의 연계를 위해 공간에 대한 샘플링 진행. 그리고 이후 사랑방 사업을 위해 조사된 공간에 대한 DB 구축 작업 진행.

성남시 문화공간 실태조사

III. 성남시 문화공간 실태조사의 과정

2. 조사 연구 추진 결과



• 활용 가능한 160개의 공간 DB 확보 : 전체 891개의 공간에 대한 단계적인 조사과정을 거쳐 활용 가능한 160개의 공간 DB 확보함. 문화공간으로의 활용가능성이 있는 곳은 성남시 유휴공간 대상의 18%에 해당함.

유형	시설 종류	기관 수	전화 조사 실시	문화공간 보유		방문 조사 동의		방문 조사 실시		DB 구축		최종 조사 비율	
1유형	구청	3	3	100.0	3	100.0	3	100.0	3	100.0	0	0.0	0.0
	주민자치센터	45	45	100.0	45	100.0	45	100.0	45	100.0	35	77.8	4.0
	복지기관	58	43	74.1	41	70.7	37	63.8	37	63.8	11	19.0	1.2
	시민단체	40	31	77.5	34	85.0	29	72.5	29	72.5	2	0.05	0.2
	문화단체	18	17	94.4	16	88.9	15	83.3	15	83.3	6	33.3	0.6
	공공기관 (공기업 등)	55	46	83.6	43	78.2	34	62.0	34	62.0	10	18.2	1.1
	기업	34	31	91.1	16	47.1	11	32.3	11	32.3	6	17.6	0.6
2유형	초등학교	58	58	100.0	58	100.0	58	100.0	58	100.0	15	25.9	1.6
	아파트	239	122	51.7	125	53.0	121	51.3	121	51.3	26	11.0	2.9
3유형	교회	324	122	37.6	131	40.4	120	37.0	120	37.0	45	14.0	5.0
	성당	7	7	100.0	7	100.0	7	100.0	7	100.0	2	28.5	0.2
	사찰	10	1	10.0	1	10.0	1	10.0	1	10.0	0	0.0	0.0
계		891	526	59.0	520	58.3	481	54.0	481	54.0	160	18.0	18.0

성남시 문화공간 실태조사

III. 성남시 문화공간 실태조사의 과정

3. 유휴 공간 DB 샘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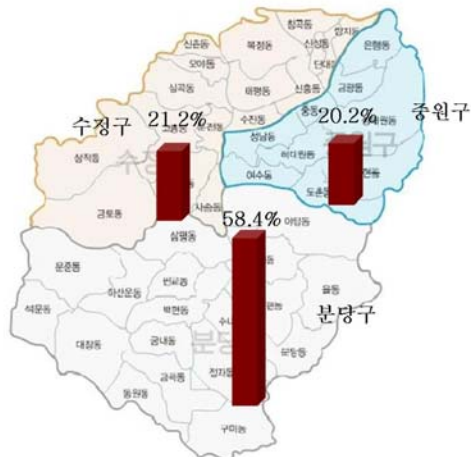
공간 조사용 필드표				고유 번호			
구분		세부내용					
공간 개요	공간명칭	상대원2동 주민자치센터		담당자	서재성		
	위치	중원구 상대원2동 3159번지		연락처	750-2950 / 729-6741		
	홈페이지			이메일			
시설개요 I	유형구분			주변 편의시설		편의점	
		공간명 (예: 연습실, 회의실)	규모	보유장비 및 시설	공간사용가능여부		비고
		채택단련실	45평	벽면거울			
		다목적실(회의실)	20평	의자 및 탁자, 음향			
		사랑나눔교실	5평	의자, 탁자			
	문화창작실	14평	의자 및 탁자				
시설개요 II	교류시설						
	현재활용상태	센터내 활용과 연계시 사용 가능					
공간 사용 조건	공간 개발 의사	협의하에 사용 가능					
	사용 가능 시간						
	기타 이용 조건	소음 불가					
사업 참여 가능성	참여가능성	구체적인 협의 진행 필요					
	장애요인						
	참여촉려방안						
기타 공간 정보(사진)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다목적실</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문화창작실</p>  </div> </div>					

IV. 성남시 문화공간 실태조사의 결과

1. 각 구별 공간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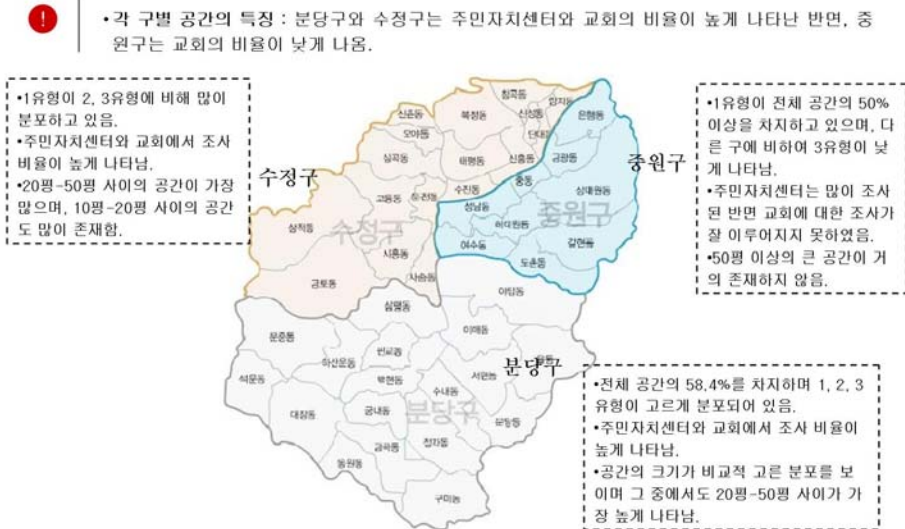
•성남시 문화공간 분포 현황(Map): 활용가능한 160개의 문화공간



성남시 문화공간 실태조사

IV. 성남시 문화공간 실태조사의 결과

2. 각 구별 공간의 특징



성남시 문화공간 실태조사

IV. 성남시 문화공간 실태조사의 결과

3. 유형별 현황 분석

- ! | •각각 공간은 유형별로 그 이용 현황과 공간나눔에 참여 가능성 및 여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이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토대로 한 개별 정책의 수립이 요구됨.

유형	시설 종류	공간이용 현황 및 공간나눔 여건 분석
1유형	구청	개방적인 문화공간은 없으나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공간나눔 사업 접근이 가능할 것임
	주민자치센터	가장 활발하게 이용중인 공간으로 나눔사업에 대한 이해 확산 및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참여가 가능함.
	복지기관	공간 여건이 비교적 열악하나 사업 참여 의지가 높고, 특히 사당방 문화클럽 연계에 관심이 많음.
	시민단체	문화공간이 거의 없으며 활용 여건은 양호하지 않으나 공간나눔 사업에 대한 이해가 높아 협력 가능성이 높음.
	문화단체	공간나눔 사업에 대한 이해가 높으며 여건이 확보될 경우 사업 참여 가능성이 높음.
	공공기관(공기업)	개별 기관 특성 및 기업문화에 따라 반응과 여건이 상이하여 선별을 통한 접근이 바람직함.
2유형	기업	공간여유가 없는 기업이 많으므로 기업의 참여 방식에 대한 다양성을 확보하여 스펀서십 등 별도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 좋음.
	초등학교	개방원칙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학교장 재량에 따른 개방 여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유형	아파트	공간나눔 외에 주민을 위한 사당방 문화클럽 활동 가능성을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교회/성당	공간 여유가 많고, 나눔 의지도 높아 사업 추진시 실현 가능성이 높음.

성남시 문화공간 실태조사

IV. 성남시 문화공간 실태조사의 결과

4. 개별 공간별 공간나눔 실현 방안 분석

유형	사업 종류	운영 체계	사업 추진
1유형	구청	시장 방침 반영 일괄적인 행정 협의	사업 목적, 효과, 이용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 제시
	주민자치센터	시장 방침 반영 일괄적인 행정 협의 및 협약 방식 도입	사업에 대한 이해 확산 및 기관 참여 캠페인 실시 기관 특성에 맞는 문화통화 사용형태 제시 공간 사용 기본 원칙 제시
	복지기관	시장 방침 반영을 통한 행정절차 적용 사랑방 문화클럽 연계 방안 제시	공간별 특성에 맞는 나눔 프로그램 적용 사업에 대한 이해 확산 및 기관 참여 캠페인 실시
	시민단체	사랑방 문화클럽 연계 방안 제시	공간별 특성에 맞는 나눔 프로그램 적용 사업에 대한 이해 확산 및 기관 참여 캠페인 실시
	문화단체	사랑방 문화클럽 연계 방안 제시	공간별 특성에 맞는 나눔 프로그램 적용 사업에 대한 이해 확산 및 기관 참여 캠페인 실시
	공공기관(공기업)	기관 특성에 맞는 문화통화 사용형태 제시 사랑방 문화클럽 연계 방안 제시	공간별 특성에 맞는 나눔 프로그램 적용 사업에 대한 이해 확산 및 기관 참여 캠페인 실시
	기업	기관 특성에 맞는 문화통화 사용형태 제시 기업 스폰서십 등 다양한 참여 방안 제시	사업에 대한 이해 확산 및 기관 참여 캠페인 실시
2유형	초등학교	교육청 단위의 사업 협조 요청 시범학교 지정 제도 등의 도입 방과 후 관리 등 운영 시스템의 제시	사업에 대한 이해 확산 및 기관 참여 캠페인 실시
	아파트	사랑방 문화클럽 연계 방안 제시	의사결정권을 가진 대표자 등과의 개별 접촉 공간별 특성에 맞는 나눔 프로그램 적용
3유형	교회/성당		사업 목적, 효과, 이용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 제시

성남시 문화공간 실태조사

IV. 성남시 문화공간 실태조사의 결과

5. 공간유형 및 대응에 따른 현실적 과제

- ! | *각 개별 공간들의 경우 각각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문화공간 나눔사업에의 참여에 대한 입장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참여의 가능성이 낮거나 부정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음.

①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

- 성남문화재단에서 추진중인 공간나눔 사업 및 문화통화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로 담당자 개개인의 성향에 의존함.
- 심지어 문화통화 사용은 공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사업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있음.
- 특히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기관에서는 전례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개방한다는 데 대한 심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음.

② 공간별 관리체계의 상이함에 따른 문제 발생

- 기존의 대관 및 공간 개방 원칙을 지니고 있던 기관의 경우 이미 운영중인 대관 시스템과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됨. 이미 2~3개월 예약제, 개별 신청제 등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기존의 운영 시스템을 변화해 가면서까지 공간 개방에 참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임.
- 또한 유료 및 무료 대관 원칙의 어디에도 문화통화 방식이 속하지 않음으로 해서 기존의 대관 원칙을 변경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함.

성남시 문화공간 실태조사

IV. 성남시 문화공간 실태조사의 결과

5. 공간유형 및 대응에 따른 현실적 과제



- 이들 유형에 따라 각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개별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시의 원칙을 정립하는 근거로 이용될 수 있음.

③ 개방에 대한 배타성

- 교회, 아파트, 복지기관 등은 특정 대상을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해당 내부자에게만 공간을 개방할 수 있다는 원칙을 표방하는 경우가 많음.
- 심지어 주민자치센터의 경우도 해당 동민만 이용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기도 하여 공간 개방 자체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보임.

④ 기존 관행 변화 거부

- 상당수 기관은 별다른 이유나 근거 없이 현재 운영 방식에서 변화를 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태도를 보였는데 담당자 스스로가 변화나 새로운 일을 벌이는 데 대해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또 한편 동종 기관과의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며 기존 사용자들의 거부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였음.
- 행정 기관의 경우 상급기관의 지침이 없어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데 대한 부담을 내비치기도 하였음.

성남시 문화공간 실태조사

IV. 성남시 문화공간 실태조사의 결과

6. 공간나눔을 위한 대응 방안



- 공간나눔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사업 전체의 체계 영역에서부터, 개별 사업 추진 방식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음.

① 공간나눔 및 문화동화 사업 홍보 및 참여 캠페인

- 공간을 가지고 있으나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참여를 유도하는 기관들을 위해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참여 독려 캠페인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오히려 귀찮게 생각하는 담당자들에게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한 공통적인 공청회나 워크숍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음.
- 민간, 공공을 막론하고 본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
- 전 시민을 대상으로 인식을 확산하지 않으면 실제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 주민자치센터 등 동종 기관이 많이 있는 기관의 경우 타 기관에서 시행, 성공적인 사례로 판단될 경우 급속히 보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됨.
- 학교의 경우 시범학교를 통해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한 다음, 전체 학교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좋음

② 전반적인 관리 운영 시스템 구축

- 사업의 주체, 관리 운영 계획, 사업 참여에 따른 의무와 권리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참여를 위한 판단의 근거를 제시해 주는 노력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참여의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 것임.
- 관리 운영 위탁형, 공간 개방형으로 공간나눔에 참여하는 모델도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스펀서형, 발표공간 제공형 등도 다르게 볼 수 있음.
- 관련 업무의 최소화를 위한 공간 사용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해당 기관의 역할과 성남문화재단의 역할을 규정하여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성남시 문화공간 실태조사

IV. 성남시 문화공간 실태조사의 결과

6. 공간나눔을 위한 대응 방안



- 공간나눔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사업 전체의 체계 영역에서부터, 개별 사업 추진 방식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음.

③ 기관의 특성에 맞는 사업 참여 제안

-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클럽들의 공연, 전시 등 활동을 유지하고자 관심을 기울이는 기관은 많았음. 이들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전체적인 문화공간 나눔을 위한 스폰서십 제도 도입, 기업의 문화통화 구매 운동, 클럽의 무료 방문 공연 활성화 등이 병행될 경우 성남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공간 나눔 및 문화 통화 운동의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 접촉 방식이 아닌 주민자치센터 알뜰 협약 방식 혹은 행정 지침의 형태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
- 행정 및 공공 기관의 경우 유사 기관의 사례 및 전반적인 흐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사실임. 따라서 이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모델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판단의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공공기관에 대한 정책 제안 및 알뜰 협의 기회 마련 필수

④ 사업 참여 모델의 다양화

- 공간 나눔 사업만으로 접촉하기 보다는 다양한 단체, 공간, 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전체 사업 구조를 염두에 두고 참여 가능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간나눔 사업 외에 다양한 형태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됨.
- 특히 대다수의 공간들이 유휴공간으로 남아있는 경우 보다는 어떤 형태로든 활용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들 공간의 여유 시간에 공간을 활용하려는 접근방식 보다는 적극적으로 공간 및 활동을 교환하는 개념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기업의 참여 방식을 알뜰 공간나눔으로 한정하기 보다는 기업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간나눔 및 문화통화 사업이 성남시내 전체를 대상으로 한 캠페인과 될 경우 도내이선에 참가하거나, 문화자원봉사를 받음으로써 관계를 설정하고, 이후 보다 적극적인 기업의 기여를 이끌어 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

성남시 문화공간 실태조사

IV. 성남시 문화공간 실태조사의 결과

7. 공간 나눔을 위한 정책 제언



- 공간 나눔 사업은 시민들의 자생적 문화활동 및 예술활동을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공간이 되므로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외에도 성남시 정책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음.

① 시 문화정책에서 문화공간 나눔 사업 지원 체계 관련 협력 구조 마련

- 문화관련 부서에 시민의 일상적 문화공간 나눔 사업을 위한 행정지원업무 및 담당 인력 구조의 마련.

② 시 소유 유휴 공간을 시민문화클럽의 문화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성남시가 소유하고 있는 유휴공간 중 시민 문화클럽을 위한 공간으로 재생하거나 활용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검토.

③ 시민 문화클럽을 위한 새로운 문화사랑방 건물의 증축에 대한 검토 필요성

- 조사결과 기존 공간의 활용만으로는 조건이 충분한 공간을 형성하기 어렵고 또 정기간의 활동 성과에 기반해서 확장되어갈 것이므로, 시민문화클럽을 위한 새로운 공간의 증축에 대한 검토.

성남시 문화공간 실태조사

V. 성남시 문화공간 실태조사를 통해 본 실천적 성과

1. 향후 실태조사의 방향성 제시

- ! 실태조사의 자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① 정책 사업과 조사 연구의 적절한 균형, ② 정책 사업에 투영될 형태로의 조사 설계, ③ 지역 사회의 협조, ④ 조사 연구의 단계적 접근, 주기성, 연계성 확보가 요구됨.

① 정책 사업과 조사 연구의 적절한 균형

- 대부분의 실태조사는 향후 정책 사업을 위한 자료로써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실제로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경우 그러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 사업과 조사 연구가 분리되지 않고 뒤섞여서 역할이 명확하게 나누어지지 않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음. 정책을 집행하는 쪽에서는 실태조사의 정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실태조사의 한계를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② 정책 사업에 투영될 형태로의 조사 설계

- 대부분의 실태조사가 정책 사업을 위한 기초 자료로써 활용된다고 볼 때, 정책 집행자와 조사 담당자의 명확한 역할 구분과 함께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정책 사업을 위한 명확한 형태로의 조사를 설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조사의 목적이 현재 현황 및 통계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케이스 파악을 통한 정책 사업에의 적용을 위한 것인지를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 목적에 따른 조사 설계 및 조사 방법이 결정되어야 함.

성남시 문화공간 실태조사

V. 성남시 문화공간 실태조사를 통해 본 실천적 성과

1. 향후 실태조사의 방향성 제시

- ! 실태조사의 자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① 정책 사업과 조사 연구의 적절한 균형, ② 정책 사업에 투영될 형태로의 조사 설계, ③ 지역 사회의 협조, ④ 조사 연구의 단계적 접근, 주기성, 연계성 확보가 요구됨.

③ 지역 사회의 협조 사전 확보

- 재대로 된 실태조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실시되고 있는 실태조사의 의미와 목적을 전체 정책 사업과의 연계선상에서 조사 대상자들에게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함.
- 지역 사회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진행된 실태조사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훨씬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조사를 넘어선 사업의 간접적 홍보 등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④ 조사 연구의 단계적 접근, 주기성, 연계성 확보

- 대부분의 실태 조사는 초기 현황 조사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음. 그 이후의 과정은 현황 조사에 이은 정책예의 구현, 그리고 확인의 순서를 거치게 됨.
- 실태 조사가 초기 현황 조사로 끝나게 될 경우 실제 정책에 활용되고 난 이후의 결과에 대한 관찰은 할 수 없게 됨. 따라서 이후 주기적인 조사로 정책 집행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그러한 과정의 피드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성남시 문화공간 실태조사

V. 성남시 문화공간 실태조사를 통해 본 실천적 성과

2. 지역특성에 맞는 실태조사 유형의 시도

① 시민의 문화욕구로부터 정책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 확보

- 지방자치 10년이 지났지만 지역단위의 구체적 문화환경 및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정책수립에 반영하는 체계는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임.
- 성남시는 일반적인 문화공간의 실태를 넘어서 시민의 구체적인 문화욕구 및 활동으로부터 필요한 새로운 문화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유희공간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욕구로부터 성남에 필요한 문화정책 수립의 근거를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음.

② 정형화된 문화공간의 활용을 넘어서 성남시 실정에 기반을 둔 새로운 문화공간 창출의 새로운 방향 제시

- 일반적으로 문화공간으로 분류되는 공연장, 미술관 및 박물관, 문화센터 등의 공공기관이 아닌 성남시의 시민들이 광범위하게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개념을 새롭게 형성하고 문화공간 나눔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지역적 특성에 맞는 새로운 문화공간 창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성남시 문화공간 실태조사

V. 성남시 문화공간 실태조사를 통해 본 실천적 성과

3. 남아있는 과제

① 성남시 문화정책과 실태조사결과의 구체적 연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의 마련

- 성남시가 장기적으로 추구하는 도시 문화비전 속에 성남시 시민문화클럽과 새로운 문화공간의 위상과 역할을 정책적으로 구조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이 영역을 성남시의 주요한 문화정책 및 활동으로 연계하고 성남시의 핵심 문화자원이자 역량으로 구축해가는 중장기적 추진전략이 요구됨.

② 실태조사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환류시킬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운영구조의 마련

- 시민의 문화욕구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다양한 형태로 진화할 것이며, 성남시의 유희공간을 둘러싼 환경도 변수가 많을 것이므로 한, 두번의 조사분석과 정책사업화로는 토대를 튼튼하게 구축하기 어려울 것임.
- 따라서 실태조사와 정책수립, 활동의 모니터링, 새로운 방향의 모색과 적용 등이 안정적으로 순환될 수 있는 운영구조가 성남시, 문화재단, 시민문화클럽 간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성남시 문화공간 실태조사

지역문화정책과 관련한 실태조사의 역할과 활용 방안을 위한 문화정책 대화모임 대화록

정리_성남문화재단

사회 | 박승현



본격적인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향후에 이러한 토론들이 지속적인 실천방안으로 이어지도록, 또, 시 차원에서도 제도적인 정책차원에서 뒷받침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을 위해 사실 전체가 다 함께 토론하는 부분이지만 우선적으로 각 지역, 전국적으로도 정책부분에서 이런 고민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 네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들은 사실 오늘의 주제와 연관돼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이러한 방향들을 계속적으로 찾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또한, 이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유로운 토론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토론문으로 정리해 오신 라도삼 선생님부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라도삼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라도삼입니다. 아까 조현성 선생님께서 중앙정부통계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방정부에서나 실제 문화를 기획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다지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번째는 우리나라가 대부분 통계를 믿지 않습니다. 대부분 통계 없는 정책들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정책에 통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의 경우 2008년도를 ‘문화시장 원년’ 이라고 정했는데, 그 취지는 ‘문화를 기반으로 도시를 바꾼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 정책단위들을 문화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획 주체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 첫 번째로 보고했던 것이 서울시와 관련된, 문화와 관련된 지표들을 만들었는데 정말 여기 저기 것을 다 끌어 모았습니다. 하다못해 정책 백서에 나온 것까지도 끌어 모은 상태인데, 저희가 보는 시각은 서울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특히, 서울이라는 지역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성남하고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하는 예술의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공공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는 수준이 낮습니다. 여기에서 언밸런스가 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국민들은 2만~2만5천 불 정도의 퀄리티를 요구하는데, 공공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은 1만5천 불이나 기껏해야 1만7천 불 정도 되는 수준을 요구합니다. 단적인 예로 ‘찾아가는 예술활동’ 에서 정명훈 씨가 한번 돌면 정말 시민들이 바글바글 모입니다. 서울시에 민선4기로 들어서면서 인수위원회가 열렸는데 서울시향에 대해서는 정명훈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어떤 인수위원회도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찾아가는 문화활동’ 은 정말 하는 사람도 힘들고 시민들 호응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정책 포인트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 하는 측면이 현실적으로 부각될 것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통계라는 것은 ‘공연관람률 몇 %’ ‘미술관람 몇 %’ 이렇게 나오는데, 이 숫자로만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시장구조가 블록버스터 중심으로 크고 있는 단계, 막 시장이 형성돼서 크는 단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연시장은 뮤지컬 중심으로 해서 블록버스터가 몇 편 성공을 하면서 창작 쪽으로 바람을 타고 있는 것이고, 이 바람이 어디로 번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시장 형성 단계에서는 뭔가 시장성을 주도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주도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잡아내야 되는데 그것을 잡아낼 수 있는 기초통계가 없는 것입니다. 각 공연별로 관객이 몇 명 들었는지, 유료객이 몇 명이고 하는 통계들은 오히려 티켓을 파는 티켓링크 같은 곳에서 받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어디에서 통계를 받는지 하니 옥션에서 받았습니다. 서울옥션에서 경매를 받아서 세계에서 예술시장, 그러니까 지금 50대 작가까지가 몇 억에 팔리고 있는지 보니까 50위가 16억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작가들은 그보다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물론 돌아가신 김환기 씨라든가 박수근 씨 작품의 경우는 상당히 작품가격이 높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통계를 어렵게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통계를 어떻게 하면 현실화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사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역할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 선생님께서는 문화기반실태조사를 할 때 지자체가 자료를 줘서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데,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통계를 극단적으로 일치시키겠다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사실 각 지자체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거의 일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조사해야

될 내용에 법적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수준에서는 서울시 같은 경우 1년 예산이 13조 정도 됩니다. 실제 집행예산을 따지면 한 11조 정도 됩니다. 11조나 13조를 쓰는 데에서도 조사를 잘 안 하는 실정입니다. 정말 감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성에 의한 정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여기 성남 같은 경우에도 문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여기 쓰는 용어들이 전부 관성으로 쓰는 용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정말 성남에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보다는 ‘앞서 계획들을 그렇게 해 왔으니까 우리도 그냥 그렇게 한다’ 라는 것이 많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나 그 담론의 단계를 한꺼번에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라는 것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관성의 법칙대로 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필수적으로 조사될 항목들이 무엇인가를 정해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지자체 차원에서는 성남이라는 도시 차원에서 집중해야 될 것들은 과연 무엇인가를 고민한다면 성남의 문제를 핵심적으로 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성남의 문제를 ‘분당과 수정구 및 중원구와의 격차 문제가 가장 크다’ 라고 보는데, 그런 격차가 있을 때는 늘 상 조사를 해야 합니다. 3년 단위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문화사랑방 같은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계속 조사를 한다거나, 문화통화 실태조사 같은 것도 3년 단위로 조사를 하여야 하는데, 이런 조사에 대한 법적 절차들을 만들어놓지 않고 반복적으로 조사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흐지부지한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 | 박승현 라도삼 박사님께서서는 실제로 정책부문을 담당하시면서 지금 통계작업도 하고 있고, 아까 잠깐 나왔던 서울시 생태계에 대한 조사도 직접 하고 계신데요, 이런 부분에서 아마 광역단위에서 그런 부분들이 어떠한 정책과 맞물리게끔 수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중간 중간에 실질적으로 쟁점 부분들을 떠올려 주시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 박사께서 먼저 마이크를 드렸는데요, 순서대로 올라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박종관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위원회 위원장 | 박종관



과장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짚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초단위, 이를테면 문화정책연구에서 태평동을 근거로 한 사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먼저 짚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실상은 용어조차도 확인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사랑방’이라는 용어를 성남에서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화부의 ‘예술현장 역점추진과제’에는 그것이 아마 ‘생활예술공동체’라는 말로 정의하고 있을 겁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폴뿌리예술 동아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Community Art’라고 하는 용어를 그냥 가져다가 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말로 불리기는 합니다만 저는 그것이 ‘아마추어 시민대중 예술활동’ 이런 정도의 의미 속에 전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례는 굳이 찾자면 외국에도 무수히 있는 것이고, 영국의 전례가 좀 유명한 것으로 이런 정도 맥락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도대체 어떤 사이즈에서 어느 정도로 포진하고 있는 것인지를 실제로 규정한 사례가 태평동이 최초라는 것입니다. 태평동 사례에서 비로소 크기와 존재방식 같은 것들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자랑할 만하다, 이런 부분을 먼저 짚고 싶습니다.

대개 지방조직 내에서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폭넓게 만들어져 있지는 않은데, 굉장히 어려운 한계에 부딪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재단’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무슨 돈의 모임으로 이해하시고 지방의회가 매우 공격적인 태도를 취해서 ‘문화재단’과 같은 조직을 만드는 것을 돕기는커녕 정반대의 현상들이 발생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을 몇 군데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성남에서 특별하게 의회 조직에 관련돼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이 나와 계신다는 생각을 하니까 제가 문화계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힘이 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매우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것이 전례로서 먼저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성남의 경우에는 방법론으로 매

우 특별한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지역통화’ ‘지역화폐’ 뭐라고 불려도 좋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방법론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비교를 하자면 지속가능의 개념이나 혹은 마을 만들기 쪽의 맥락과도 닿아 있는 듯한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작년에 성남재단에서 나온 자료들을 다 훑어보고 한 권은 제가 가지고 다니면서 가끔씩 보기도 하는데 매우 진취적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사실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큰 한계를 가지는 것이 결국 비계량 요소를 계량으로 하고 있다는 것의 한계를 가진다는 겁니다.



비계량적 요소를 계량으로 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주 비근한 예로 ‘축제가 얼마의 돈을 벌었는가’ 를 계량화하려고 하면 ‘지역의 이미지 제고’ 등에 수십억씩 집어넣어서 어떤 한 축제가 끝났는데 몇 백억 씩 벌었다고 자랑해야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는 성남이라고 하는 매우 특별한 곳에서 만들어진 특별한 방법론을 가진 여러 가지 정책조사가 되어야 하는데 새로운 방법론을 찾지 않고 기존에 방법론으로 접근한다면 역시 이런 중요한 의미 같은 것들이 발제문으로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성남문화재단 5대 정책사업’의 경우 ‘문화정체성 제고, 문화기반시설운영, 문화복지증진’ 이런 형식으로 이야기했을 때, 이 행간에 과연 이러한 특성이 묻힐 수 있겠는가, 이런 정도의 문제제기는 할 수 있겠다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첫 번째 이야기가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 확인해야 할 실상은 지금 기초단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문화중장기발전계획’ 이라고 하는 것이 시도된 전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충주, 원주 정도가 있고 아마 지금 전주가 이것을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정도 수준이며, 대구가 작년에 중장기계획을 낸 정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매우 앞서가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같이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워낙 힘든 일이며, 광역단위 문화정책의 경우에도 여전히 이런 정도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표독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지역문화중사자 입장으로 보면 지역의 특성을 정책화하기보다는 비슷한 공식을 대입해서 이런 공식을 규격화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더군다나 연구자 분들의 폭도 그렇게 넓지 않은 한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런 한계는 저희가 정책을 다루고자 할 때 나타나는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는 ‘정책이 어떻게 현실과 연결되어질 것이냐’ 혹은 ‘계량화된 지표를 어떻게 현실에 반영시켜낼 것이냐’ 이런 문제가 또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매우 어려운 지점들을 발생시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었으면 싶은 것이 문예연감입니다. 이것은 무지 두꺼운데다가 무지 비싼 책입니다. 문화와 관련한 곳에 다한 권씩 꽂혀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 열어보는 것은 상당한 인내를 요구합니다. 이 안에 있는 행사의 개수를 센 적이 있었는데, 2005년에 ‘도대체 수도권 대 지방의 문화예술활동이라든가 공연예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들은 굉장히 무성하고, 지역문화 중사자들이 모든 것이 다 수도권에 집중화되어 있어서 소외되어 있다 ‘ 이런 말들이 있어서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계량화할 것인가’ 라고 하는 방법론을 찾다가 ‘좋다, 그러면 신문, 일간지 등에서 주위 모은 이 문예연감에 있는 개수를 세자.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혹은 경기도 혹은 전라남북도의 공연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한번 세보자’ 하는 취지로 세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48 : 52, 비슷비슷하다’ 라는 통계를 수치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 이용되는 것이 문예연감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방법론을 개발해 내지 않으면 사실 통계는 통계 그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마 조 연구원님께서 그 부분을 힘주어 설명하신 것 같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 문예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오래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용어도 법적 용어입니다. 문예진흥법 시행령 1조에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문화의 집까지에 5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전시시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 시설이라고 개념 속에 지방문화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장관이 정하여 필요에 의하여 관보에 게재함’ 이런 정도의 6~7가지 정도를 보통 문화기반시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2007년을 기준으로 문화예술총람이 보통 문화의 집까지 만을 계량화하는데 담고 있습니다. 이유는 거기까지만 통계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고, 예컨대 생활친화적 문화환경 조성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78개 지방 시설이라든가 혹은 성남이 진정 알고자 하는 문화사랑방의 근거지가 되는 문화시설 같은 것들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그런 정도 맥락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나눠서 말씀드린다고 하고 길게 말씀드렸는데, 매우 조심스러운 방법론을 찾아내야 할 텐데 그 방법론에 관해서 다 조언을 드리기는 저도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토론을 조금 더 진행해 보시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마저 풀도록 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 | 박승현 말씀하신 대로 나눠서 말씀하신다는 것이 일단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해 주셔서 일단 네 분의 말씀을 듣고 전체적으로 쟁점을 정리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문화재단에 예술지원 팀장을 맡고 있는 김홍남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팀 팀장 | 김홍남



서울문화재단 김홍남입니다. 일단 저도 박종관 선생님 말씀처럼 참석해 주신 시의원님들께 저 스스로도 똑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 주최측에서는 의례적이건 실질적이건 당연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만, 외부 초청자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마 실질적으로 고맙다는 표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성남문화재단의 발제나 이런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정책적 방향의 전환을 모색하려고 하는 시점이고, 그 시점에서 향후에 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예산이나 지원을 이런 쪽으로 배정을 해 주셔야 될 분들이 시의원님들인데, 같이 이런 토론의 자리에서 같

이 내용을 들으시고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는 것은 성남문화재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되고, 향후 정책방향이나 변경을 행할 때 큰 도움이나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런 모임들이 단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소모적이고 쓸데없는 모임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러한 모임들이 쌓이면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나 대안들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성남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부천문화재단처럼 공연장 위주의 시설운영 쪽으로 재단의 성격이 규정돼 있다가 점차적으로 지원방향까지 같이 포함해서 문화정책이나 문화사업 쪽까지 포괄하면서 전체적인 재단 운영방향을 설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런 면에서 볼 때 실태조사가 왜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로서 적절하게 제시가 됐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본다면 이런 훌륭한 조사가 진행이 됐고 결과적으로 발표가 됐을 때 향후에는 어떤 실태조사가 계속적으로 연계돼서 나와야 되는가 할 때,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정책방향이나 변경에 대한 근거로서의 실태조사보다는 실질적으로 정책방향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할 때 구체적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실태조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실태조사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른 지역과는 달리 성남지역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실태조사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일단 실태조사라고 하면 '어디를 지향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성남문화재단에서 실시한 실태조사는 사실 정책변경을 위한 근거로서의 실태조사였다고 본다면 앞으로의 실태조사라는 면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이 지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성남문화재단이 나름대로 설정한 방향에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채울 때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방향이나 내용을 담보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최근에 지원방향의 변화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 지원의 방향은 직접지원 쪽이 아니라, 예술가에 대해서 예술지원금을 나눠주는 형태의 지원형태가 아니라 간접적인 지원형태로 많이 가고 있고, 다른 표현을 쓴다면 '프로젝트형 지원'으로 가고 있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시민과 어떻게 만나느냐' '시민한테 구체적인 혜택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지원을 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변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여러 번 얘기가 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직접지원을 통해서 예술가들의 창작수준이 높아지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오히려 의존성만 강화되고 있다'라는 평가 때문에 아마 이런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성남문화재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원의 형태도 이런 방향 속에서 찾아져야 된다고 보며, 그런 방향 속에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간접적인 지원형태 쪽에서 보면 요즘 이야기하는 것이 복지국가형 지원형태를 많이 얘기하는데, 이것은 예술가에 대한 지원보다는 시민이 예술에 대한 장벽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다고 보고 예술에 대한 장벽이나 접근의 어려움을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럼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원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성남문화재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조사의 방향도 그런 쪽으로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저도 마찬가지로 들으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 예술지원팀 전문위원 | 오세형



금년에 경기문화재단 내부에서 정책팀이 새로 생겨서 여기 오기 전에 정책팀하고 정책과 관련 있는 팀장들하고 원고를 먼저 읽고 간단하게 토론을 하고 왔습니다. 저희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느끼기에 기초단위에서 실태조사라든지 정책적 관점에서의 기초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경이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대부분이 실태조사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문화재단 자체도 과거에 처음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막연한 반대들 ‘그것을 해서 어떻게 쓰겠느냐’ 그리고 ‘실태조사를 한번 했을 때 실효도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느냐’ 라는 문제에 있어서 많이들 부정적인 의견을 가졌었는데, 최근에 와서 정책의 근거로서의 실태조사 중요성을 인식하게 돼서 저희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시점입니다.

아까 처음에 조현성 연구원이 말씀하신 중앙과 지역과의 차이에 관한 연구자료나 데이터 확보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실감하고 있는데 아마 지표개발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금년 들어서야 착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반응은 “아- 이것만해도 대단한 것 아니냐? 어쨌든 이것으로서 바로 근거 있는 정책자료로 활용되지 않더라도 추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실제 성남문화재단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이것을 바탕으로 더 적극적인 사고를 하게 될 근거로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쪽으로 입을 모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태조사, 과거 사랑방클럽 할 때도 저희가 주목해서 봤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까지 이어지고 내년까지 이어질 조사사업이 완결되면 아마 다른 지자체로 영향력이 퍼질 것 같은데, 저희 경기문화재단이 광역단위로 이루어져서 31개 시군과 연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 시키려고 하는데, 사실 성남지역만 해도 문화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체활동이나, 저희 지원사업의 예를 보면 거의 60% 정도가 성남하고 수원에 공연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타 지역에서도 심지어 성남문화재단 같은 곳에서 공연하기를 원하고 있어서 이쪽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상승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저희 위쪽에, 북쪽에 있는 보통 소외되었다고 말을 하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고, 저희가 지역의 정책을 리서치하려고 지역에 내려가서 담당자들과 이야기하면 주로 개발측면에서의 정책, ‘문화개발정책’ 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의미에서의 문화적 관심이었지, 문화를 위한 또는 예술을 위한 측면에서의 정책적 관심이라든지 의지라는 것들은 전혀 보

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실태조사가 경기문화재단이나 관련된 기관들에 미치는 영향들은 사실상 환기시켜주는 부분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후적으로 내용적 측면보다는 추후 과제랄까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제 개인적으로도 문화공간에 관한 관심들이 많아져서 어쨌든 사랑방클럽을 활성화시키고 그것들을 함께 교류하고, 문화통화를 통해서 교류할만한 공간들을 그에 맞서서 거시적인 비전을 가지고 조사를 하시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나오게 된 개념이 생태계라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애초에 시작했던 시발점도 문화생태계라는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직해서 흐르는 듯한 조직으로 각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개발한 것인데, ‘생태계’란 말을 저희도 많이 고민해 봤는데 아까 박종관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생태계’라는 말을 관용적으로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실제적으로 적용되기가 굉장히 힘든 말이고, 정책상, 그리고 실용적으로 정책을 제도화시킬 때 모호한 표현이 돼 버리고, 제가 항상 정책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기대효과라든지 비전 같은 것을 제시할 때 ‘생태계’라는 말은 많이 등장시키지만 구체화시킬 때는 애매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때 있어서는 또 나름대로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보이고, 그 부분은 온전히 성남문화재단의 정책개발팀이나 이쪽 팀에서 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은 제가 부끄럽지만 저희 쪽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로 더 대화를 하고 저희 쪽에서도 서포팅을 하고 저희도 도움을 받고, 이런 유기적 관계로 움직여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오늘도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추후로 부족한 부분, 저희도 부족하고 아직도 실행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보며 사실상 시발점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지점에서 같이 연대할 수 있는 큰 힘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 박승현 감사합니다. 네 분의 토론자께서 여러 가지 쟁점을 떠올려주셨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정리하면, 가장 중요하게는 현재 오늘 발제부터 시작해서 중앙차원과 광역단위, 기초단위 이 세 단위가 사실은 접근방법이 전혀 틀립니다. 기존에 중앙단위에서 접근해 왔던 방식 자체가 기존에 한국에서의 문화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일반적인 접근방식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서울이라든가 경기라든가 이런 광역단위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접근들이 있어왔고, 사실은 성남 같은 경우 기초단위에서 최초로 이러한 시도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의 쟁점은 기초단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새로운 접근방식을 기존에 전국단위, 그러니까 중앙단위에서와 또 지금 시도하고 있는 광역단위에서와 비교분석을 해서 이것이 어떠한 관계맺음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특징들이 기초단위에서부터, 내지는

광역시와 전국단위에서의 연계까지도 함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나 등의 여러 가지 쟁점들이 거기에 숨어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논의해야 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오늘 지역의 문화의 집을 운영하시는 관장님, 청소년수련관을 직접 실무적으로 책임지고 계신 팀장님, 그리고 실제 시에서의 정책을 담당하시는 책임자분, 그리고 시의원님들, 이렇게 지역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특히나 저희 사랑방문화클럽에서는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 분들이 지역에서 뛰시면서 실제로 이 문제가 문화공간의 문제, 오늘의 지역실태조사와 정책문제는 사실 문화공간을 매개로 해서 얻어지고 있는 것인데, 문화공간의 문제가 어떻게 부딪치고 있고 어떠한 방식으로 현재 정책에 반영되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요구사항들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떠올려서 전국단위에서 보거나 광역단위에서 보는 정책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기초단위에서는 이런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향후에 어떠한 방식으로 발전시켜내야 될 것인가’라는 것까지도 꼬집어낸다면 오늘의 논의가 굉장히 생산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

오늘 다섯 분의 시의원님이 참석하셔서, 서울 그리고 경기 등 다양하게 오신 발제자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고마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지역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으

면서 얘기를 풀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으로 마이크를 돌려서, 수정구에 있는 성남 문화의 집을 운영해 오다가 이번
에 서현 문화의 집을 운영하시게 된 윤종준 관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문
화의 집이라고 하는 공간이 아까 ‘걸어서 15분’ 이라고 하는 가장 가까운, 일종에 생활
권에서의 공간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주목을 해 왔는데요, 그런 문제와 더불어서 공간의
문제, 그리고 시민들의 문화활동의 문제 부분에서 기초단위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가장 솔
직하게 느껴지시는지, 또 오늘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현문화의집 관장 | 윤종준



서현문화의 집 관장 윤종준입니다. 오늘 이런 의미 깊은
행사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행사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추미경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태조사 성과
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
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연감이나 문화시설 이용실태에 관
련된 조사자료들을 보면 어떤 사업을 한다는 제목 정도만
소개가 나열되어 있어서 어느 누가 봐도 참고하려고 해도,
같은 계통에 있는 사람이 참고하려고 해도 실질적인 활용
을 할 수 없는, 정말 이 책자 하나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
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감들이 상당히 부실하

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의 성과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큰
과제가 될 것이고, 또 다른 조사와 어떻게 연계를 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 ‘정책사업으
로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발
언되는 사항들이 의원님들께서 듣고 많이 반영을 하실 것이라 생각이 되지만, 현실적인
정책에 연계가 될 수 있어야만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발표된 내용들 중에서 주로 사랑방문화클럽이라든지 문화통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지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성남시
이미지를 상당히 개선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려면 문화도시 성남시로서의 정체성을
찾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남아트센
터가 생기면서 외지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성남에 대해서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
니다. “아, 거기 아트센터도 있고” 이런 식의 얘기들이 오가고 하는데, 지금까지 성남이
가지고 왔던 이미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고, 분당이 들어서면서 분당주민들이
따로 분당시로 독립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을 나름대로 노력한다면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연박물관뿐이 아니라 종합박물관도 충분히, 유물이 없다는 이유로 종합박물관은 안 된다고 하지만 충분한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옛그저께 국립민속박물관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전시를 아주 생동감 있게 하고 있었고, 숨겨진, 눈으로 보이지 않는 역사도 복원을 하면 충분히 역사박물관 설립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시민들이 찾아가서 체험하고 보고 듣고 느끼면서 내가 살고 있는 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실패한 정책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문화의 집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프랑스 문화의 집을 모델로 해서 우리나라 골목골목에 주민들이 문화체험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취지로 문화의 집을 설립했지만, 프랑스 문화의 집은 우리나라 예술의 전당과 같은 큰 규모의 문화기관입니다. 그것을 약 200평~250평 정도의 소규모로 축소를 하면서 전국이 어떤 형태로 벌어졌느냐 하면, 면적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기계로 찍어낸 듯 똑같은 시설이 하남시에도 있고 성남시에도 있고 성남 구시가지 수정구에도 있고 분당구 초립에도 있고 서현에도 있고, 성남시에서만 해도 문화의 집이 3개가 있었지만 그 건물 내에 들어가면 문화사랑방, 정보검색실, 공연장, 개인연습실 등 이런 판에 박힌 테마로 공간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그 공간을 100% 활용하지 못합니다. 한 1/3 정도는 거의 죽은 공간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초립 문화의 집이 없어지는 사태까지 생기고, 또 중앙정부에서 문화의 집이 설립된 이후 5년이 지나면 중앙정부 지원예산이 끊어집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반영을 하지 않으면 5년 뒤에는 없어지는,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설립했던 기관이 없어지는 사태까지 생깁니다. 아마 초립 문화의 집이 2002년도에 생겼지만 금년도에 없어진 것이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돼서 물론 주민들이 나름대로 다른 문화활동을 계속 하기는 하지만, 그 설립취지 자체가 처음 의도했던 대로 주민들이 쉽게 찾아가서 문화활동을 하는 공간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연습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문화사랑방도 거의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댄스스포츠 등을 위한 문화연습실 개념의 큰 공간들은 거의 대부분이 노래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가득 가득 채워지는 데 비해서 일부 공간은 활용이 안 되고 있고, 또 분당지역 서현 문화의 집을 예로 들면 컴퓨터교실이 지금 3 타임이 돌아가고 있는데 컴퓨터 대수가 11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전날 11시에 와서 접수를 하려고 대기하고 있어도 이중으로 접수하는 사태가 생깁니다. 그리고 다른 강좌들도 거의 새벽 2시에는 와야

자기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사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강좌를 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공간을 제거해야 되겠다고 시에다 얘기했을 때 시에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 주지 않습니다. 있는 공간을 그대로 뒀다 된다는 융통성 없는 시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좀 더 주민들이 원하는 강좌를 위해서 좁은 공간을 터서 다르게 원하는 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융통성 있게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아주 간절합니다.

사회 | 박승현 실제로 문화의 집을 운영하시면서 나타나는 직접적으로 부딪치는 문제들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역현장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 저희 사랑방문화클럽 백만기 운영위원장께 마이크를 넘겨드릴까 합니다.

그동안 보시면서 사실 저희가 공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역에서 사랑방의 실질적인 필요성, 그리고 이번에 공간실태를 조사하면서 백만기 위원장께서는 스쿼트 등 외국 사례까지도 같이 얘기하시면서 이것이 성남지역에서 갖는 의미라든가 실질적인 방향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보시면서 느끼신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루마운틴보이스 | 백만기



저는 형식적으로는 사실 오랫동안 조직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연배되는 지인들이라든지 동료들을 어떤 때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사회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우리 사회라는 것이 사실 자기 시간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워크홀릭 환자’라고 하지만 일단 열심히 했고, 그분들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걸쳐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발전도 이루어지고, 우리가 또 여기서 이런 문화담론도 얘기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분들이 손을 놓고 무엇을 할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공황상태에 빠진 것 같기도 하고,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도 무엇을 할지 모릅니다. 어느 분이 언제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 친구가 어느 기업에서 CEO를 상당히 오래 하셨는데, 경제적인 여유는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만날 골프만 치고 술만 먹을 줄 알고 놀 줄을 모르더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 분이 지적해 주셨지만 시민들도 그렇고 제가 지금 그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한 사람들까지 이런 문화에 대한 향수는 막연히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이런 것을 어떻게 접근해서 누려야될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이 숙달이 안 돼 있어서 경제 규모라든지 국민소득에 비해서 문화에 대한 수준에 많은 격차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우선 이분들이 문화에 대한 향수라든지 본업 외에 다른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고 하는 말도 있듯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같은 것을 지자체라든지 성남문화재단이라든지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이 우선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사랑방문화클럽도 자체적으로 결성이 된 클럽이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의도대로 안 되다 보니까, 또 생겼다가 없어지는 그런 클럽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꽃이 피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그런 아픔 같은 것도 협회에서 보게 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이런 세미나가 열렸다는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우선은 교육을 많이 해서 이분들이 그런 것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 박승현 지금 클럽활동을 하고 계신 늘봄영상공동체 이상훈 실장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늘봄영상공동체 | 이상훈



일단 다른 분들, 다른 정책을 고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많이 배우고 또 약간 이해 안 가고 어렵다 하는 느낌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문화공간과 관련한 이번에 조사한 것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문화공간에 대한 문제는 시설과 장비,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저희가 사랑방문화클럽에도 참여하고 지역에서 여러가지 클럽활동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많은 것들 이 시설과 장비의 문제에 우선해서 일단 그것에 참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주체인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준비하고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무엇보다 크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성남문화의 집 같은 경우도 좋은 시설과 좋은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녁 7시, 8시 되면 딱 문을 닫으니까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이런 구조적인,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런 문제들을 시에서부터 해결해 주어야 지역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체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간조사 같은 내용을 제가 아

직, 데이터 내용이 아까 DB 160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데가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스스로 ‘이런 공간이 있다’ 라고 얘기해 주는 분들, 자기네 공간을 내놓을 수 있고 함께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미 클럽들이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그런 공간들,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통계자료에 나오지 않는, 확인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 주변에 있는 클럽들도 보면 자기들이 회비 걷어서 돈 모아서 공간을 만들어서 연습하는 곳도 많이 있고 이미 그렇게 사용하는 곳도 많이 있는데, 그런 공간들조차 지역에서 같이 공유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예와 같이 공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려면 참여하는 사람들, 클럽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스스로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공간정보를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공유하면서, 클럽활동을 할 수 있을까하는 문제는 저도 사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지 잘 모르겠고, 공간에 대한 문제는 그것이 선행됐을 때 공간의 문제가 더 정확하게 해결되고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사랑방문화클럽도 제가 보기에 사람들이 되게 자랑스러운 여기고 있습니다. 성남에서 이런 정책이, 정말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또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 스스로가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성남시에서 나왔다는 것이 성남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문화활동가로서 너무 자랑스럽고 많이 기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되고,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까? 잘 돼야 될 텐데. 어떻게 성공이 가능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생각에는 ‘그 주체인 사람을 세우고 사람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활동 할 수 있겠는가’ 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 정책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런 공간들이 실제 지역에서 문화도시로서 자리매김이 되려면 준비하시는 분들, 특히 준비하는 그 주체가 처음부터 잘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랑방문화클럽 사업을 보면서 이것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문화재단 분들을 알게 되고 실정을 보면서 되게 답답함을 많이 느꼈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 성남시에 100만이 살고 있고 문화재단이 엄청난 큰 규모를 가지고 있고 실제 지역이 문화정책을 생산하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는 문화재단 내에 10명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인원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고, 이분들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예를 들어 사랑방문화클럽에 현재 1,103개라고 하는 엄청난 클럽들이 있다라는 통계는 나왔지만,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그 사람들이 무엇이 어려운지, 어떻게 도울 것인지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현재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공간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런 문제를 실제로 엮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남시에서 정말 문화도시로서 만들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인력을 투입하고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실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그 다음 사

업들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 | 박승현 여러 가지 지역에서의 현황과 문제점들에 얘기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정종삼 아까 어떤 분이 지역에서 문화재단이 만들



어질 때 저항들이 많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죠? 성남에도 각종 재단들이 만들어지는데 그에 대한 저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재단을 만든다고 했을 때 재단이 어떤 정책을 생산한다든가 아니면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역할들을 같이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시설운영 중심의 재단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저항들이 컸던 것 같습니다. 특히 성남문화재단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성남문화재단이 그래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새롭게 평가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시설운영 중심에서 문화정책들을 생산하고 지원하고 이것을 해 나가게 되

면 새롭게 평가받고 인정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지금 새로운 정책들을 펴나가는데 저항이 있는 것을 저항이라고 하기보다는 아마 몰라서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더 클 것 같은데요, 처음 시도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화공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주된 공간이 여기 주민자치센터나 학교, 공공시설들인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은 강사를 두고 노래교실을 운영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는데 이제는 그런 형태가 아닌 문화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연습을 하거나 문화발표공간으로 활용하거나 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험의 없어서 그것이 잘 개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개방시간을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한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개방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는 지금은 조금 풀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했을 때에 상근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근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정비의 문제, 주민자치센터가 별도로 떨어져있지 않고 사무공간들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성남시에 5대 의회가 새롭게 시작되고 들어온 의원들이 그러한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작년 행정감사 때부터 지적을 하고 하면서 개선들이 많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는 해결해야 할 저희의 역할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공간들을 개방한다고 했을 때 보충되어야 할 것이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소만 개방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음향과 같은 다양한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재원확보 대책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의원들의 역할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방금 이상훈 씨가 말씀하셨지만, 성남문화재단에 문화기획팀을 보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쩔 때 보면 안쓰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 힘들게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 박승현 토론을 통해 여러 가지 지역의 현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성남시의 비전추진단에 정효진 팀장께 마이크를 넘기려고 하는데, 지금 금방 말씀하셨던 대로 비전추진단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센터를 관할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복지관과 같은 기관들은 전부 다 관할이 틀립니다. 그 관할이 틀린 부분들을 저희가 공간실태를 조사하면서 처음부터 흠어져있는 관할들을 어떤 식으로 모아서 어떻게 시의 정책방식으로 제안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며 시민들은 그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고, 또한 공간들을 활용해서 시민들의 활용을 증진시켜낼 수가 있는데,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공공정책은 거기에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공간실태조사에서 나타났듯이 공공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설공간에 대해서는 아파트라든가 교회와 같은 공간을 연구단위로 삼았고 ‘기존에 터치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으로 개척을 해 나가자’, 심지어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건물 중에서 쓰지 않고 남아있는 그런 건물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향후에는 제기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공간자원을 계속 넓혀가고 있는 중인데 우선적으로 가장 직접적으로는 공공기관들이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공공기관은 결국 정책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파고 들어가 보니까 예를 들면 정책을 다루고 있는 시에서도 그것이 전부 다 부서별로 나뉘어져 있어서 어떤 목적을 향해서 일괄된 통로를 가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추진단’ 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다른 시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될 수도 있고 ‘기획실’ 이라는 이름으로 될 수도 있고 ‘정책협의회’ 라고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시의 전체적인 정책과 연결되어서 문화정책들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통로들이 마련되고 또한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정책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식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 속에서 지금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식은 앞으로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면서 찾아보는 것으로 하고, 아마 정효진 담당께서도 저희와 긴밀하게 만나면서 그런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들으면서 생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제기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남시청 비전추진단 | 정효진



성남시청 비전추진단에 정효진입니다. 제가 실제로 문화예술정책개발분야를 담당하면서 보니, 성남시청 같은 경우는 정책입안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정책기획과가 존재하고, 정책기획과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정책들이 각 부서로 돌아가는데, 비전추진단이라는 이 조직이 정책을 기반하는 입장에 있지만 기존 정책을 수정·보완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하나의 발전성 있는 조직집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문화예술정책개발을 맡고 있지만, 아까 DB에 관해서 조현성 연구원님이 말씀하신 DB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저도 여러 자료를 접하고 유관기관을 상대해 보면 그런 DB가 실질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거기에서 제가 정책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방문화클럽 같은 경우는 기존에 Top-down 방식, 위에서 아래로 하는 정책보다는, Bottom-up 아래에서 위로 가는 시민 자생문화 공간 및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활성화 측면에서 우리 성남시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 역시

도 이 부분을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역점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자리에 제가 와서 많은 부분을 귀담아 듣고 정책입안에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 | 박승현 감사합니다. 지금 정책 지향적인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있었고, 그리고 성남지역에서의 다양한 실질적 어려움이나 부딪치는 문제들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하실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까도 지적이 나왔지만 기초단위에서 이 정도의 논의를 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성남은 현재 굉장히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앞서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점을 빨리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과와 문제점을 빨리 드러내고 정책분야도 빨리 공유를 하고, 현재 우리나라 문화정책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이것은 전국적인 단위의 정책을 계속 포괄적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심한 말로 하면 허울좋은 정책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에게 ‘아, 내가 이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고, 내 문화예술을 향상시킬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초단위에서는 너무나 피부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부딪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적나라하게 드러내 봤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것은 여러 가지 정책을 입안하고 계시고 또 연구를 하고 계시고 실제 추진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과, 기초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느끼고 있는 성남의 사례들을 같이 떠올려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정책 부분이 어떻게 시민 내지는 삶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부분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지, 그리고 성남에서 끌어당기고 있는 부분들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 성과와 한계들을 짚어보고, 향후 전국적인 문제로 확대시켜야 되는지 한번에는 어렵지만 이 문제들을 드러내보는 시작의 계기로 삼으면 좋지 않겠나 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 문화사업국 국장 | 노재천 제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문화사업국장으로서 책임도 많이 느끼고 있고, ‘과연 내가 와서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가’ 라는 자성의 생각도 잠깐 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성남문화재단이, 아까 김홍남 팀장님과 정종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태동될 때에 사실 하드웨어만 운영하는 쪽으로 구상을 잡았기 때문에 성남시에서도 많은 토론과 문제에 부딪혔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런 것에 힘입어서 사실 2005년 7월에 성남문화재단의 조직이 새로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이 사실 문화사업국입니다.



2004년도 12월달에 문화재단이 창립을 하고 나서 약 7개월 만에 성남시장님께서 조직 하나를 더 만들고, 거기에는 시의회의 사회복지위원들께서도 많은 역할을 해 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7월달에 문화사업국이 발족 돼서 10월달에 사업계획을 막 수립할 때에 5개의 문화정책사업을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수립을 했던 것입니다.

아까 이상훈 씨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때 문화기획부 정원이 5명입니다. 5명으로 태동을 했었고, 처음에는 나름대로 연구라든가 정책사업에 대한 기반을 다지는 사업들을 2006년도에 끝을 냈습니다. 그때까지만 아니라도 사실 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정말 사랑방문화클럽이라는 이 소중한 프로젝트가 정말로 시민과 같이 가서 맞닥뜨려야 되는 인력의 충원 등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 말고 또 문화통화는 더욱 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5개 사업을 하면서 발제로 오늘 추미경 실장님이 보고하셨던 문화공간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이것이 지금 현재 160개라고 나와 있지만 이 공간을 저희들이 활용하려면 거기에 있는 건물주 아니면 대표 이런 사람들하고 다시 만나서 사용조건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정중삼 위원이 말씀하신 도난문제라든가 안전문제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저희들이 풀어야 될 숙제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푸는 방법은 알고 있지만 가서 맞닥뜨려서 풀어야 되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화공간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 사랑방이 그 공간에 가서 연습을 하고 거기에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걱정이 앞섭니다.

오늘 박승현 부장도 이야기하는 것이 신랄하게 한번 비판을 해 보자 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사실 그동안의 인력문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처음 2004년도에 성남문화재단을 만들 때 외부용역을 준 부분이 있는데 그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도 11월달에 문화재단과 아트센터가 분리되는 것으로 방향이 건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칫 잘못 분리가 되면 또 문제가 될 것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성남문화재단이 문화정책을 작년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은 있지만, 오늘 패넌로 참석해 주신 분들이 많은 말씀을 주셔서 힘이 많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큰 틀에서 좀 더 조직을 체계화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더 고민해서 우리 5개 정책사업이 참 순조롭게 갈 수 있도록 실무책임자로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블루마운틴보이스 | 백만기 아까 라도삼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공공문화의 서비스 수준하고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수요하고 갭이 있다고 그랬는데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여기 성남아트센터에 제가 자원봉사원으로도 오면서도 활동을 해 봤고 사랑방문화클럽운영위원으로도 있지만, 여기서도 아까 라도삼 위원님 이야기한 것을 느끼는데, 이쪽에 재단이라든가 센터 쪽에 관계하는 사람들의 눈높이하고 자원봉사자로서 자원봉사를 하려는 사람들의 눈높이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갭을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과 함께, 또 사랑방문화클럽에 대한 시각도 많은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에서 바라보는 것하고 사랑방문화클럽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욕구는 굉장히 큼니다. 그런 부분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의 갭이 줄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최근에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부의 미래’ 를 보면 속도의 차이 라는 것이 나옵니다. 민간기업은 시속 100km로 달리는데 관공서에서는 그것을 쫓아오지 못한다든가, 거기에서 표현하기는 제일 속도가 느린 곳이 법원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1시간에 3km밖에 못 쫓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의 차이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상훈 씨도 얘기했지만 저는 가끔 일하다보면 굉장히 답답한 점을 느낍니다.

지금 문화기획부에 소속된 직원이 소수이고 절대적으로 숫자가 작지만 이런 정책사업을 시행하는데 사랑방문화클럽의 운영위원들 숫자도 꽤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 욕구도 큼니다. 그분들을 활용을 했으면 하는데 그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아쉽고, 또 이런 자체의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집행부서에서 어느 정도 일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조직 내에 있는 다른 지원부서에서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점을 들어서 발목을 잡는 일이 없지 않아 있다 말입니다. 아까 그런 부분이 속도의 차이에서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의 인력들을 잘 활용을 하려면 속도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들을 자체적으로 극복하면 집행부서에서 좀 더 일을 하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위원회 위원장 | 박종관 행정의 층위나 업무분장범위는 절충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예술이라면 분리가 되지만 문화 가지고는 분리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복지나, 문화나’ 이런 것 가지고 시간 허비하면 안 되고, 실제로 청소년은 복지이면서 문화입니다. 그런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행정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구성돼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 범위를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의 교훈인데, 정책은 스스로 존재하는 정책은 없습니다. 문화가 문화정책이 가장 상부에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명확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시에 종합발전계획 같은 것이 있다면 그 밑에 문화의 내용이 하부에 존재

하는 것이고, 이 상부구조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권력주체의 시민들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시민의 삶과 그 삶의 방식의 문화도 함께 묻혀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2가지가 먼저 존중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쭙볼 것이 있는데요, 정책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에 2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온순한 태도, 사회적 과제를 성문화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주 둔탁한 형태로 산을 옮기고 강물을 바꾸는 것이 정책이다라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2개를 구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이 2가지가 혼재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문화정책은 어떠한가 하는 질문에 대해 저는 지금 현재 성남문화중장기발전계획이 매우 문화적인 방법이 동원이 되어서 오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것이 장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Bottom-up 방식이어서 훨씬 더 여기서 같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Top-down의 반대인 아래로부터 치고 올라오는 방식을 실천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율범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성남이 이 질곡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너무 앞서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매우 리스크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 사례가 성공하기를 누구 못지않게 바라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기초 중심의 문화연구와 같은 사례들이 매우 비중 있고 또 이것이 성과를 낸 사례가 워낙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사례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대로 다시 한 번 옮기면 시도 자체가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데, 실제로 자율 범위는 어느 정도 존중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둠에서 B-Boy 연습을 하는 청소년들을 양지로 끌어내기 위해서 연습장을 멋지게 해 주면 안 나옵니다. 다시 어둠으로 숨어 가는 겁니다. 그것은 움직임 코드를 기성세대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범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문화 혹은 지역문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접근해 들어가도 결국 3가지가 나옵니다. 인력, 시설, 재원입니다. 이 3가지가 나오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이 순서대로가 중요도의 순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루실 때 지금 성남이 하고 있는 정책사업들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는 추미경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범주화할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총체적 삶을 다루는 태도처럼 두루뭇수리하게 하지말고,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분석해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9쪽에 보면 정책사업의 투영될 형태로의 조사설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범주, 범위를 구획해서 성공확률을 높이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생각난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앞서가 있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급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표현이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말이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앞서나가시면서 온갖 것 다 챙기려는 식으로 가면 오히려 거꾸로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자율이란 다시 말해서 제도가 닿지 않는 곳에 작동해서 건강함을 유지하는 메커니즘인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강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 이상훈 선생님께서 지적했던 주체형성의 문제하고 맥이 닿습니다. ‘주체가 누구냐’ 하는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면 실제로 정책은 어디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일정정도의 포지션들이 해결됩니다. 이럴 때 정책에 시동을 거는 쪽의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자율범위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범위에 대해서 이룰테면 제가 이렇게 와일드하게 몇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안은 못 될 줄 압니다마는 생각이 나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라도삼

제가 성남문화재단 쪽 컨설팅을 나름대로 하면서 지켜본 것을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문화사랑방을 위해서 달려왔다’ 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 조사부터 시작해서 문화사랑방 활성화에 맞춰 갔고 왔다고 볼 수 있는데, 비유컨대 기업들이 런칭하려면 마켓조사부터 하는데, 성남문화재단의 경우 마켓조사가 핀트가 안 맞았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우선 시민들의 욕구조사라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당 같은 경우는 지금 수입을 2만5천 달러 정도 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서울쪽으로 출퇴근하고, 그리고 전부 다 중고등학생들 가구가 있고, 그러면 뭔가 욕구에 대한 답이 나올 거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회사에 분당 사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는 항상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정구와 다른 구는 욕구가 다를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욕구조사란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에서 대부분 민간의 프로그램을 조사하지 않는데 이 점은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공공에서는 민간프로그램을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파악을 못합니다. 그리고 공공은 공공대로 민간과 경쟁해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천원의 행복’ 같은 프로그램이 찬성도 있지만 불만도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시에서 천원에 공급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라는 얘기부터 나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과 공공이 경쟁하지 않고 어떻게 협력할 것이냐의 문제를 먼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조사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성남문화재단과 성남시의 포지셔닝이 명확해야 한다고 봅니다. 용인하고 강남하고 성남이 가운데 끼 있는데 그 중에서 과연 성남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용인과 강남 그 축에서의 자기 역할을 찾는 리서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부천의 사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부천은 인천하고 서울 중간에 끼어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천과 부평 쪽이 문화적으로 취약지대였고, 서울 강서, 구로 쪽이 문화적으로 취약지대이어서 오히려 가운데 물리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를 통해서 오히려 부천에 역량을 모으는 그런 전략적인 방법을 취했고 거기에서 성공적인 사례를 가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성남은 남쪽으로 뻗어 가는 축 속에서, 서울 강남에서 쪽 뻗어나가는 축 속에서 분명히 한복판에 있는데, 만약 지리적 위치의 중심에서 힘을 잃었을 때 성남이 갖는 손실은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러면 여기가 적어도 문화 전체가 흘러가는 클러스터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미술관이나 이런 곳은 전부 용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화 생태계가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치에서 성남이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를 반드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들의 요구하는 수준과 관에서 제공하는 문화콘텐츠 사이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현재 국내 여러 지자체에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작품 수준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첫 번째는 코디네이터가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에 미술품을 장식한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작품활동을 해 본 작가들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것을 코디할 만한 코디네이터가 없습니다. 코디네이터는 작가들을 모집하고 행정관료들을 설득시키고, 특히 도시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건축행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설득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미술 쪽에 관계하시는 몇 분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전부 ‘너무 촌스러워서 제거했으면 좋겠다’라고 평가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누가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판단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술가가 부족한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코디네이터 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 인력이 부족한 것이냐’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는 컨셉들이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사업명들은 정말 잘 개발을 하십니다. ‘사랑방’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용어는 굉장히 낯설음에 도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방’이라는 것 다 알지만 정책 속에서는 굉장히 낯선 용어이고, 더군다나 시민들은 감이 오지 않는 용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감을 갖도록 하느냐 하는 것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맞닿을 수 있도록 관여도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성남시가, 조금 편하게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다시 고민을 해 보자. 처음부터 다시 고민하고, 지역통화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역통화의 혜택범위를 과연 어디까지 줄 것인가를 좀 더 고민해 보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원래 통화의 개념하고 성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화의 개념하고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역통화권을 받아서 일반적인 약국이나 슈퍼에서 쓸 수 있는 돈의 개념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현재 시설이용권 형태로서, 너무 거리가 먼 개념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는 정책을 추진할 때는 우선 무엇보다 내부에 능력이 있는가라는 정확한 판단, 그리고 외부자원을 끌어올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 등이 먼저 우선 되고 난 다음에 정책을 실행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정말 큰일 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블루마운틴보이스 | 백만기 코디네이터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는데, 왜 코디네이터가 없습니까? 예술행정이나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라도삼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성남도 마찬가지 이겠지만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예를 들면 강남구에서 저희한테 거리예술 프로

젝트를 연구해 달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못합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것은 연구대상이 아니다” 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계획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인데, 기획자가 기획을 해서 그에 해당되는 예술가를 끌어 모으고, 그 사람들이 실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세 단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전체적인 컨셉을 잡고 스케줄링 짜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예술가를 끌어 오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에 맞는 공간설계를 해 주는 것까지 필요한 것입니다.

블루마운틴보이스 | 백만기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라도삼 현재는 그러한 인력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러한 인력이 없기 때문에 ‘지역문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반복행정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 김홍남 차장님 같은 경우에도 프로젝트 베이스 지원제도라는 것을 많이 얘기하고 우리도 많이 고민합니다. 저도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내나라 했을 때는 저도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문화벨트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문제는 그 예술가들이 실질적인 물리적 공간이나 현장으로 나오면 일단 당황합니다. 무대도 아닌 곳, 내지는 미술관이 아닌 곳에서 전시를 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들 하셔서 실제 그 공간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컨셉이 딱 나오게 되고 그 컨셉들에 의해서 실제 그것이 설치되고 난 다음에는 시민들의 보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로 전락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설치했나’ 하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조각품이 완전히 쓰레기처리장이 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비일비재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공미술이 그 시작단계에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공공미술이라는 것도 아직은 3~5년 정도 작업이 축적되지 않으면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사업은 아니더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 | 박승현 서서히 마무리를 해 나가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오세형 선생님이나 김홍남 선생님, 아니면 아까 전체적인 발제를 해 주셨던 조현성 선생님께 코멘트를 부탁드리고, 정기영 의원님, 그리고 한 번도 말씀 안 하셨던 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이라고 보는데, 논의 나왔던 것들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팀 팀장 | 김홍남 라도삼 박사님 말씀에 이어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관과 민의 언어 자체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소통

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을 ‘코디네이터’ 라고 표현하셨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재단이 있다보니까 관과 민을 가장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언어나 사고방식이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부분, 그 중간에서 적절하게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는 부분, 그런데 궁극적으로 예산을 쥐고 있는 것은 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관 쪽으로 실릴 수밖에 없어서 결국 민 쪽으로,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예술가들한테 또 다른 비판이나 불평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당장은 힘들지만 성남문화재단 같은 경우 이런 형태가 궁극적으로는 지역민의 수요를 적절하게 받아들여서 관 쪽으로 다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간헐적으로 나왔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료집의 16쪽에 보면 성남시 문화동호회 지원요구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시급한 것이 예산지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정책방향이 정해지면 제가 볼 때는 큰일난다고 봅니다. 이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가장 어렵고 필요한 부분이라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성남문화재단의 정책방향이 정해지면 궁극적으로는 서로 망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교육 부분은 여러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육 쪽은 지금 너무 많은 쪽에서 교육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식상한 부분도 있지만 교육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고, 지금 성남문화재단의 공간과 지원의 새로운 정책방향이 사실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기보다는 새로운 영역을 개발하는 측면으로 치중하다보니까 상호관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기존의 공간을 활용한 교육 분야와 그것을 다시 지원 쪽으로 연결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연계성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회 | 박승현 감사합니다. 경기문화재단에 마이크를 넘기기 전에, 정기영 위원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정기영 나중에 말하려고 하니까 아까 정종삼 위원님께서도 제가 하려는 것을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성남에서 이러한 뜻깊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성남을 문화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가 마련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최고의 공연장과 최고의 공연, 최고의 작품을 전시하는 것이 문화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원내 토평동, 분당에 있는 정자동, 야탑동 등 그 어느 동에서라도 문화예술의 공간이 펼쳐지고, 지금 탄천에서 굉장히



좋은 데가 있는데 매주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가보면 색소폰 연주도 있고 여러 가지 공연의 장소가 열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극소수로 열려지고 있고, 성남 서현에 ‘문화의 거리’ 라고 만들어졌지만 시설물만 있고 거기에서 어떠한 공연도 이루어지지 않고 전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성남의 실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성남 문화재단에서 사랑방문화클럽을 통해서 많은 여러 가지 욕구조사를 했습니다.

결과와 생각이 안 맞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클럽에서 공연할 공간과 연습할 공간 이것이 가장 중심적이라고 보고, 아까 경기문화재단에서 말씀하시는 예산,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클럽들에게 자유스럽게 연습할 수 있는 공간과, 또 아까 시설이라고도 하셨지만 율동공원, 중앙공원, 우리 성남에 여러 공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공원에 공연만 열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사랑방문화클럽, 성남문화재단에서 이러한 정책을 올바르게 시행해서, 데이터화시켜서 그 욕구들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서 저희들이 추구해야 할 목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중삼 위원님과 지지난 주에 외국 연수를 다녀왔는데, 그곳에는 가는 곳곳마다 공연이 펼쳐지고 공연자들이 자기들의 작품을 CD로 만들고 판매도 하는 식으로, 시민들이 문화의 거리가 ‘진짜로 문화의 거리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곳에 가서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성남문화재단이 처음에 태동할 때는 굉장히 많이 욕을 먹었지만 우리 문화기획부가 생김으로서 문화재단이 칭찬의 소리를 많이 듣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큰 기대를 하고 있고, 시의원님들과 더불어서 정책적인 지원과 여타 지원들은 거의 약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정중삼 인원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죠. 그것은 시의회에서 정관변경동의(안)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올리기만 하십시오. 통과시켜드리겠습니다.

사회 | 박승현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데이만들린챔버 | 김병규 저는 현대연구소에 근무하다가 지금은 음악을 전공하고, 현재는 사랑방 운영위원으로 있는 김병규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이런 행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신 것 대단히 감사하다고 생각



하고, 저는 운영위원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제가 공연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이기도 합니다. 양쪽 실무를 다 보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만나교회라고 사랑방 장소를 제공하는 교회를 사용했습니다. 만나교회 공간을 이용해 보니까 편하고 참 좋았습니다. 일단 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가게 되고, ‘넘실’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기 때문에 그쪽도 좋고 저희도 좋은 그런 결과가 있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연습장이 너무나 잘 돼서 좋기는 한데 공연장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 지난 주 관악구청 강당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강당을 보면 강연장이지 공연장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공연장이라고 공연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고 카페트가 깔려있습니다. 그러면 소리가 전혀 전달이 안 되고, 마이크를 써야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공연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공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공연장을 갖게 되면 여러 가지를 검토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분당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는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정도 공간만 돼도 공연은 가능한데,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성남 아트센터에 가보게 되면 공연물 전시하는 곳 있죠? 그런 공간들을 실제로 주민들이 가서 보느냐? 꼭 여기 와 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외국생활을 해서 그쪽 예를 들게 되는데, 밀라노 같은 경우는 그런 공연들을 시에서 매달 자료를 발행해서 거기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얼마이고, 누가 공연한다’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즘 대중매체도 마찬가지이지만 너무나 한쪽으로만 문화가 편중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악 같은 경우 너무나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색소폰 말씀하셨는데 만약 ‘울동공원에 가면 갈 때마다 색소폰 공연하더라’ 그러면 한두 번 가고 그 다음에 안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밀라노에 자주 갔었는데, 중앙성당에 가면 공연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남미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도 오고 기타, 바이올린 연주자도 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러한 연주가 있어도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관심이 전혀 생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한쪽으로만 치우쳤기 때문에 관심이 안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음악이 국악도 있지만 남미음악도 있고, 일본음악, 중국음악 많이 있는데 저희는 항상 한쪽으로만 치우치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랑방이 정지해 있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음악을 하는 동아리

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형태의 문화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살릴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로서 분당구 예술축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당구 내에 속해 있는 단체들이 음악공연을 하는 것인데 그 축제하고 사랑방축제하고 무엇이 다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시에서 양쪽으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매우 궁금합니다. 솔직히 몇 명이나 와서 보는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요즘 학교에서 음악, 미술시간이 없어져가고 있는데 다른 도시는 몰라도 성남만이라도 학교 내에서 이런 사랑방들을 통해서 학교 내에서 전시라든가 공연을 학교 수업과는 관계없이, 1년에 한두 번씩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성남은 정말 다른 도시와 다르게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한다’ 라는 느낌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퇴근 이후 연습실 이용을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연습공간이 한 팀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팀이 씁니다. 따라서 귀중품은 다른 공간에 놓고 키를 복사해서 여러 팀이 시간을 정해서 문을 열고 타고 들어가서 쓰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공무원이 없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공간이 있으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귀중품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문을 잠그지 않아서 제약이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사회 | 박승현 감사합니다. 조현성 연구원님, ‘문화부의 정책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제가 약간 격한 표현을 썼었는데 지금 전국단위 내지는 중앙단위에서의 정책과 실태조사가 오늘 쟁점이 되었던 지역의 기초단위에서의 정책과 실태조사들과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 보완되거나 방향들을 잡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 조현성 저는 기본적으로 하는 조사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방식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지역단위에서도 유사한 조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번 공간실태조사처럼 특별한 조사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초단위가 대단히 중요한데, 또 어제 이 발제문 받을 때도 박 부장님 말씀처럼 ‘아, 성남이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성남이라면, 성남은 기초자치단체는 아닙니다. 이 정도의 인프라와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성남은 당연히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중적인 위치로 가면 제일 중요한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초단위로써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공간실태조사를 보더라도 공간 160개를 DB화 한 것을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문화단체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엮어나갈 것이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성남에 살지 않는 저나, 혹은 성남시민들도 그것을 누가 조직하고 이끌어 나가가는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디나 지금 수준에서는 문화적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니까, 사실 그러면 성남시민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누가 조직, 기획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누가 제공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아마 그 부분이 성남시 혹은 성남문화재단이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 박승현

청소년수련관에서 실질적인 일을 담당하고 계시는 김기봉 팀장님 말씀을 들겠습니다.



정자청청소년수련관 | 김기봉 수련관에 대한 역할과 상황에 대한 진단을 말씀드리고, 아 이들의 여건들, 그리고 지금 변화하고 있는 입시제도 관련해서, 또는 내후년에 바뀌게 되는 전일제 휴무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영상동아리를 한정지어서 얘기를 드리자면, 시험이 끝나면 노래방도 가고 어디 놀러가도 되는 데 굳이 시험 끝나자마자 우리 동아리실로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놀지 왜 오냐?” 그랬더니 수련관이 놀이터다라고 생각하는 개념도로 있고, “일요일도 열어주세요” “토요일도

열어주세요” 그래서 저희 경우에는 저희 팀 식구가 저 포함해서 3명인데 토요일은 다 나오기로 했고 일요일은 번갈아 가면서 나와서 편집실을 비우지 않는 구조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취미활동과 놀이공간으로서의 동아리실이고, 또는 교육공간이기도 하고, 또 꿈을 찾는 공간이기도 하고, 입시를 나누는 입시고민상담, 학부모상담, 이성상담, 등 어찌 보면 제가 미디어 교육을 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고민들에 대한 상담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적 한계, 시간적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간적 한계에 대한 부분들은 이틀이면 편집기가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관계맺음이 되어 있지 않은 학교, 그리고 개별 학생들을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맺음이 되어 있는 학교 영상동아리 아이들은 장비신청서만 쓰면 대여를 해 줄 수 있지만 전혀 알 수 없는 근거 없는 친구들한테는 장비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 사용신청에 대한 공문을 보내게끔 하는데, 이럴 경우 불편한 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간적 한계에 대한 부분들은 요즘 아이들이 참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 활동시간은 토요일, 일요일 주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주말에 나와서 계속 근무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적인 한계사항들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단, 공교육에서 체험학습이 있는데 체험학습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회를 할애한다’ 이런 규정이 명확하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사를 하는데 미디어 활동에 대해서 아이들이 촬영을 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 학교에 공문을 보내야 학생들이 저희와 같이 문화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휴무토요일, ‘놀토’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2주와 4주를 ‘놀토’로 정하고 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놀토’를 정했던 이유는 입시위주로 교육을 하다 보니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이 부족할 것 같아서 휴무토요일을 제도적으로 만들었는데 군포의 어느 사례에서는 수업일수가 줄으니 학부모들이 항의를 하여서 오히려 보충수업을 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방학 때 일정부분은 입시위주가 아니고 놀아야 되는데 방학 때 또 보충학습 할 거라면 ‘방학은 뭐하러 하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리를 해 보자면 공공공간적인 측면이나 혹은 관련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지만 정책이 갖고 있는 지속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고, 그 공간 안에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교육주체와 또는 코디네이터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을 조율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안학교에서 활동한 경험도 있어 영상동아리를 작은 학교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적인 한계점에 대한 부분들은 문화통화가 빨리 정착화된다고 하면 용인에 있

는 아이들이 이쪽에 와서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수정청소년수련관은 성남 쪽, 분당은 정자청소년수련관에서 미디어교육을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동아리 경우에는 ‘청소년미디어활동연대’ 라고 해서 성남권 지역은 아니지만 외부에 5개 기관이 같이 연합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서울에 가서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관계맺음이 되어 있는 기관들은 굳이 카메라를 들고 갈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외부기관들하고 활동했던 이유는 제가 활동하고 있는 네트워크에서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그런 연대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했던 의도였습니다. 올해 12월에 평가를 해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시킬 예정이고, 활동연대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어디를 가든지 장비나 편집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활동들에 대한 노하우랄지 또는 그러한 활동사례들을 지역권 내에 다시 갖고 들어와서 중앙청소년수련관도 미디어 사업이 생긴다고 얘기를 들었고, 또 수정청소년수련관과 우리 수련관도 하고 있는데 전국 지역권 내에서 3개 수련관이 미디어 사업 프로젝트 또는 미디어교육을 하고 있는 사례는 없다고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문화적으로는 미디어영역뿐만 아니라 굉장히 좋은 여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사회 | 박승현 오세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경기문화재단 예술지원팀 전문위원 | 오세형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랑방클럽 같은 것들도 문화향수자 개발 측면이 아니었나 싶었는데, 막상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는 거의 시민주체육성의 컨셉으로 진행되고 이미 많이 진행되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박종관 위원님이 정책의 유연성이라고 할까요, 정책의 맹신을 조심했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라도삼 선생님께서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강조하셨는데 그 의견에 제가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에서 이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에서 정책을 적용시키다보면 사실 광역단체에서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고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대안들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앞에 분석까지는 괜찮은데 대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항상 문제가 생긴다고 저희는 봤습니다. 그 지점에서 갑자기 건너뛰니다. 기계적이거나 아니면 너무 일반적인 것들을 적용시키거나, 그래서 저희가 ‘2010’ 이라는 중장기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중에서 20%정도밖에 적용을 안 합니다. 80%는 사장되었고, 그 20%도 실행방안은 결국 재검토되어야 하는 것들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용의 문제는 남겨져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광역에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이 일반적이어야 되고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된다는 강박관념 같은 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서만 통하는, 우리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충분히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이 지역문화의 시발점이라고 보고, 특히 기초는 훨씬 더 현장성을 중시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뽑아낼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사랑방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화공간을 많이 발생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지금 공간을 몇 개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개인소유의 땅들을 기부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것들을 위탁받아서 운영한다든지, 그런 사례들을 한두 개씩 아주 소수이기는 합니다만 개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 특히 경기도 지역에 코디네이터가 없습니다. 코디네이터란 아까 말씀하신 정도의 복합적인 기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예술가가 아니지만 예술가도 이해하고 행정도 이해하고 조직도 할 줄 알고 그런 정도의 다기능을 가진 분들이 필요한데, 제가 해외팀들하고 작업을 하면서 깜짝 놀랐던 부분들이 그런 다양한 능력들을 가진 코디네이터라는 사람들이 충분히 인정받고 존중받는 풍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기획자라고하면 공연기획자라든지 일정한 기능에 머물러 있는 역할로 인식을 하는데, 그런 기능들이 활성화되면 사랑방에 대한 연대라든지 차후 공간과의 매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성남문화재단에서 지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자발성에 기초해서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은 지금 꿈꾸시고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의 결론이 아닐까 생각되고, 그런 부분에서 사람에 관한 문제로 다시 귀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 | 박승현 많은 말씀해 주셨고,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 왔던 추미경 실장님과 유상진 과장님께서는 마이크를 못 드리는데 그동안 함께 준비해 왔던 호스트라고 생각해서 마이크를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국내 문화정책 풍토로 보면 사실 이러한 정책토론의 자리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정책의 장기적인, 내지는 전체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그것이 구체적인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까지 연계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 문화실태조사라고 하는 쟁점을 가지고 중앙차원에서 그리고 광역차원에서, 기초단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함께 쟁점화시켜 봤고, 향후 이러한 토론들 내지는 고민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구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역이라고 하는 구체적 단위에서 어떻게 정책이 실천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더욱 더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정책 대화모임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늘 멀리서 참석해 주신 여러 정책담당자, 연구자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역에서 항상 묵묵히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기반들을 닦고 계신 여러 활동가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많은 시의원 분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 드리고, 아까도 계속 나왔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정책화되고 제도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노력들을 함께 해 주시면 정말 성남이 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 2007 하반기 문화정책대화모임 참석자 명단

번호	성명	소속 및 직위
1	강재훈	다움문화예술기획연구회
2	김기봉	정자청소년수련관 미디어팀장
3	김병규	사랑방클럽 운영위원회 위원
4	김해숙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5	김홍남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 팀장
6	노재천	성남문화재단 문화사업국 국장
7	라도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8	박승현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부장
9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위원회 위원장
10	백만기	사랑방클럽 운영위원회 위원장
11	오세형	경기문화재단 예술지원팀 전문위원
12	이상훈	늘봄영상공동체 실장
13	이일록	다움문화예술기획연구회
14	이종덕	성남문화재단 상임이사
15	유상진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과장
16	윤종준	서현문화의집 관장
17	정기영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18	정용한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19	정종삼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20	정채진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21	정효진	성남시 비전추진단
22	조현성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23	추미경	다움문화예술 기획연구회

성남문화재단 자료집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Report

2007 하반기 『문화정책 대화모임』

지역문화정책과 관련한 실태조사의 역할과 활용

발행일 : 2007년 10월

발행인 : 이대엽, 이종덕

발행처 : 성남문화재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757번지 성남아트센터

전화 031-783-8124(문화기획부) 팩스 031-783-8140

www.sncf.or.kr

© 2007 성남문화재단





2007 하반기 「문화정책 대토론회」 대외특
지역 문화정책과 관련하여 삼척35시의 역할과 발전방안



